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5 1982년 10월 2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October 2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OCT 2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대학교 입학보다 진급이 더 힘들어
"영어실력이 관건"
진학 세미나, 온타리오 각대학 소개

대학진학을 목적에 둔 한인고교졸업생들을 위한 한인대학진학세미나가 지난 23일 온타리오교육회관에서 학부모·학생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 나온 토론토대학 교무과(Admission)의 베티·이비스터여사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토론토대학에 진학하려면 적어도 평균 74점이상 고교성적을 가져야 한다"(스카브로·에린데일 캠퍼스의 경우 65점)면서 대학진학도 쉽지 않지만 대학에서 공부해 나갈때 부딪치는 문제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스터여사는 2년전부터 토론토대학의모든 신입생에 실시되는 영어시험을 예로 들면서 영어로 의사표현도 중요하나 작문실력이 충분치 못하면 리포트, 논문작성에 심한 곤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은 2년전부터 영어작문 시험을 실시, 입학 2년안에 이 시험을 통과못하면 3학년 진급이 불가능, 학교를 중도 포기해야 한다.2년전 입학한 학생들 중 약 200명이 탈락, 진급을 못했고 그중 50명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로 발표됐었다.

베티여사는 "이 제도는 대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민족계 학생들을 차별하기 위한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한인대학생회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 온타리오 각 대학의 한인학생들은 각기 자기대학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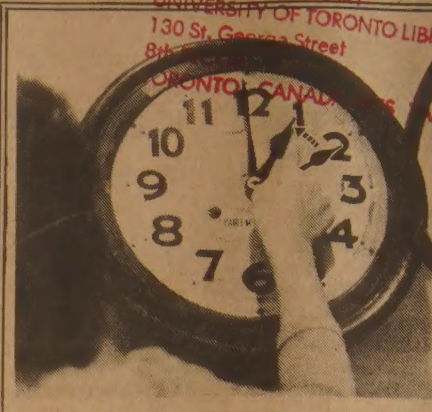
워터루대학의 이인군은 근로학생(Co-op)제도를 설명, 주로 이공계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간 공부하고 4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5년안에 학교는 마치고 돈도 벌게 된다고 이군은 설명했다.

이밖에 맥마스터, 웨스턴온타리오, 요크대학등도 소개됐다. 점심식사 후에는 인문계, 이공계등으로 나뉘어 각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과목 소개와 장래 전망등이 발표됐다.

공동 주최한 한인교육연구회 조성준회장은 막간을 이용 "많은 교포들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민왔다면서 교육에는 무성의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교포들이 골프대회나 무슨 친목회다 하면 백여명이 모여 몇십불씩 돈을 쓰면서 교육연구회행사에는 모이지도 않고 입회비 10달러를 내기도 꺼려한다"고 말했다.

◆후배들을 위해 자기 대학을 소개하는 선배대학생들. 왼쪽부터 조성용(토론토), 이인(워터루), 정태교(Kusa 회장), 이영희(요크).

◆대학진학 세미나에 참가한 교포학부형및 학생들.



▲오는 31일(일요일) 섬머타임이 해제된다. 이날 새벽2시가 1시로 바꾸어져 종전보다 1시간 늦추어진다.

오는 31일부터 섬머타임 解除
새벽 2時를 1시로 변경

오는31일(일요일)부터 섬머타임(일조량절약시간)이 해제된다.

이날 새벽2시가 1시로 변경됨으로써 종전보다 1시간 늦추어진다.

교민 이상덕씨 사기혐의 입건
소유하던 레스토랑 화재 관련
보험금 타기 위한 방화?

홀튼지구경찰은 26일 벌링턴의 〈해드·쿼터〉 레스토랑 $50만 화재사건과 관련, 식당주 이상덕(56)씨(60Park Ave. E. Burlington)와 다른 3명을 입건했다.

이씨의 혐의는 범죄음모및 사기기도(Conspiracy to committ an indictable offence and attempted fraud)이다.

경찰은 지난 5월24일 레스토랑의 내부를 전소시킨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 5개월간의 수사끝에 또 다른 3명을 방화 및 기소가능한 범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중 아직 체포되지 않은 1명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졌다.

해드·쿼터(Head Quarter) 레스토랑은 (2209 Planes Rd. E. Burlington)은 교민 정길수씨와 이씨가 동업하던 식당으로 화재이후 보험회사와 보상문제에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26일 홀튼경찰이 발표한 입건자명단및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덕(56, 60 Park Ave. E. Burlington): 기소가능범죄음모및 사기

◆O'reilly, Patrick(42, 426 10th St. New Westminster B.C): 기소가능범죄음모·사기및 방화

◆Lloyd, Games(47, 75 Queen St. N. Hamilton):

◆Elston, Robert Frederick(44, 수배중·해밀톤거주):

전기료 8.4% 인상
주민들 평균$1.66 추가부담

주정부의 5% 인상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하이드로는 26일 내년 1월부터 전기료를 평균 8.4%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상률 8.4%는 하이드로측이 수개월전 내년부터 14% 인상은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과 온타리오 에너지국의 8.8% 인상 권장안보다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야당위원들은 인상률을 5%로 동결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새로운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전기료가 평균 8.4% 인상되면 토론토의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20,35이기 때문에 $1,67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퀘벡주는 내년도의 전기료를 평균 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지 권유
"한국조선 축소"

프랑스 유력경제지 Les Echoe는 OEDC가 오는 11월중 세계 제2위의 조선공업국으로 부상한 비회원국인 한국의 유력조선공업대표인 현대, 대우, 삼성및 조선공사의 관계자를 초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세계의 조선및 해운불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의 타개책으로 초과조선시설의 축소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응렬씨 석방
미국경찰 소취하

부인과 딸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온타리오주 런던경찰에 체포됐던 한응렬(47)씨는 26일 청문재판에서 미국경찰의 소취하로 석방됐다.

지난 8월이후 부인과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씨는 2가지 2급 살인미수및 1급 무단침입 혐의로 미국 유타주 경찰로 부터 추적을 받아 왔었다.

한 경찰소식통은 사건이 원래 부부싸움에서 발단된 것이므로 미국경찰이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 피해자인 한씨부인의 청원으로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치 않았으며 따라서 범인인도 요청도 무효화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런던교민은 한씨부인이 한씨를 돕기 위해 지난주 런던에 왔다가 27일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말 이후 별거해 왔으며 한씨부인이 청구한 이혼소송의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발레단 가을시즌오픈
잠자는 미녀, 봄의 제전등 공연

캐나다 국립발레단(The National Balet of Canada)의 가을 시즌 공연이 오는 11월 10일(수)부터 28일까지 예년과 같이 오·킈센터에서 있게 된다.

3주간 계속되는 가을공연 작품은 캐나다 초연의 돈·키호테, 봄의 제전, 잠자는 미녀등으로 캐런·케인, 테나트등 솔로이스트들이 출연한다.

티켓값은 요일별로, 좌석위치에 따라 최하 $5.00에서 최고 $25.00까지이며, 티켓은 오·킈센터박스 오피스나 각 Ticketron 혹은 전화: 766-3271로 크레딧·카드로 살 수 있다.

프로그램문의는 캐나다 국립발레단 전화: 362-1041로 하면 된다.

반정부유인물 배포
징역 1년6개월선고

(서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22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에 반정부내용의 불법유인물배포혐의로 구속된 김철기씨(26·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멤버)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7월23일 미국계회사인 콘트롤데이타 코리아의 노사분규동안 한국정부가 파업중인 한국인노동자보다 회사측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외신기자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7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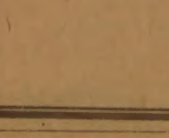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심■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은하 보석
란콤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제5회 사격및 수렵협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5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1월13일(토) 오전11시(우천불문)
장 소 : TORONTO SPORT MEN'S ASSOC.
(구 토론토·건클럽)(약도참조)
참 가 비 : AA, A, B, C조(각35불) 단체팀(3명1조, 35불)
※위 참가비에는 실탄비와 디너값 포함.
시 상 : 참피언 1 명
AA, A, B, C, 주니어, 시니어(노인상)
각각 1.2.3등 단체상, 장려상
사격종목 : TRAP(표적 날려 맞추기)
⊙두 종목에서 5명이 한조로 단발사격도 있음.
고정사격 내기로 상품을 탈수있음(터키 SHOT)
기 타 : ○올해 처음으로 특별히 노인대항이 있겠사오니 많은 어른께서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당일 총이 없으신 분은 본 협회에서 무료 제공 함.
연 락 처 : 791-0081)MR. 한) 755-7635(MR. 백)



주최 : 캐나다사격및 수렵협회
후원 : 재캐나다체육회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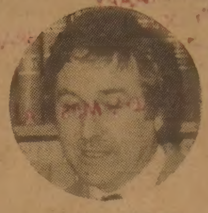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에트닉사회 전체의 골치거리"

발표된 이민사기건수 빙산의 일각

—이민변호사들 밝혀



◆이민변호사 멘델그린

이민사기범들에 의한 피해자는 메트로·토론토에만도 수천명이며 그리스계 이민들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뿐 전체 에트닉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이민변호사와 경찰들이 말했다.

토론토의 이민변호사인 게리·시갈씨는 이민상담역(Immigration Consultant)들도 불법 이민자들에 영주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고 밝혔다.

캐나다 변호사협회 이민위원회 위원장인 맨델·그린씨는 "이민사기는 에트닉·코뮤니티의 큰 두통거리이다. 최근 수개월간 적발된 위조문서만도 수십종류에 달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재 이민사기에 관한 일련의 강력수사를 펴고 있으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방경찰의 데이빗·모리손형사는 "이민사기가 한몫 볼 수 있는 비지니스임은 분명한 것 같다. 얼마나 시장이 큰지 말할 수는 없지만 가짜서류가 계속 나돌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명의 자마이카인들이 위조 이민서류로 캐나다에 입국, 영주권을 얻으려다 연방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연방경찰은 이 위조문서를 얻기 위해 천여명이 $2,000에서 $4,000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고 발표했다.

핵연료가공시설 건설

88년준공, 연산2백톤 규모

(서울 27일=연합) 한국정부는 88년까지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핵연료 가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성낙중 한국전력사장이 27일 말했다.

성사장은 이날 국회 상공위에 출두, 「핵원자로 공사가 다음달에 발족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외국회사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생산규모가 2백톤이 될 이 핵연료시설을 건설하는데 531억원(약 7,100만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3,700만달러는 외국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소련, 서울올림픽 참가

주일소련대사 시사

(도쿄 27일=연합) 브라디미어·파브로브 주일 소련대사는 27일 소련은 88년 서울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할 것 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파브로브 대사는 이날 「동경신문」발행인에게 소련은 야구가 서울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야구선수를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파브로브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소련관리가 서울올림픽의 소련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첫번째 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스카보로교회탄생

김회섭목사 취임

김정국씨등이 주선, 김회섭목사를 담임으로 새교회 「스카보로교회」가 창립됐다. 매주 일 상오11시 예배를 보는 동교회 위치는 스카보로지역 400 맥코완·로드의 아파트 1층(Conference Room)이다.

풍문 동창회

6일 창립 총회

풍문여고 동창회 창립총회가 11월6일(토) 오후6시 91 멈머리·불리바드(버치마운트×허밍우드)에서 열린다.

연락처는 조남정(Mrs. 최, 233-3349), 천영자(Mrs. 지, 640-4682), 고명희(Mrs. 양, 757-8323), 정희복(Mrs. 김, 1-668-4073)이다.

소량의 알콜도 적혈구 손상

야채 섭취하면 회복

〈보스턴-UPI〉 술의 알콜성분은 극소량일지라도 적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를 일시적으로 손상시키는데 채소를 섭취하면 이같은 손상이 회복된다고 존스·홉킨스의과대학교수 제티·스피박이 밝혔다.

보통 칵테일파티에서 마시는 정도의 소량의 음주도 적혈구에 피해를 주나 이것은 일시적이므로 비타민 B-6등의 피리독신비타민종류와 푸른 잎채소종류등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다.

적혈구의 생존기간은 1백20일로 적혈구생산시스템의 손상을 방임해두면 만성화되어 결국 영구적으로 파괴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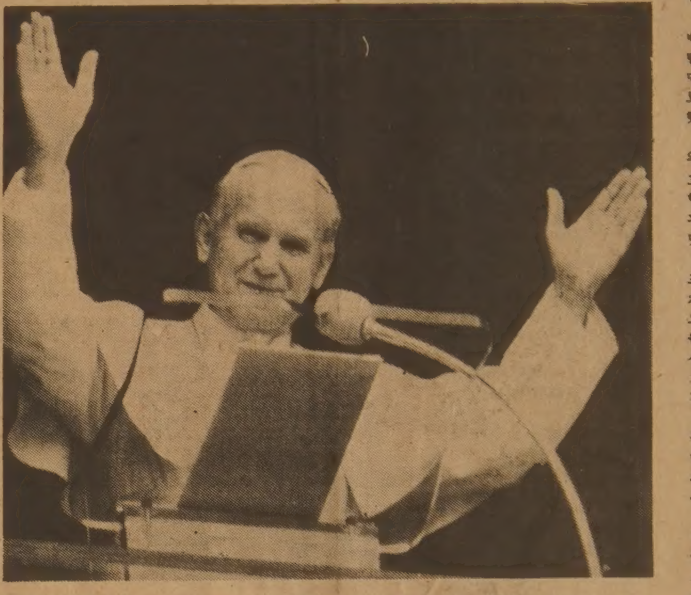
비타민을 섭취해 알콜속의 에타놀성분이 주는 악효과를 막고 균형을 유지할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과음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적혈구세포는 산소를 세포조직에 공급하는데 그수가 지나치게 줄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손상된다. 알콜은 신체의 모든세포를 상하게해 궁극적으로 모든 기관에 피해를 주는 일반적인 독소라는 설명이다

음주와 [illegible] 산소결핍은 특히 임산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신생아의 몸이 작거나 기형이 될수있다고 그는 말했다.

신간 뉴잉글랜드 의약저널에 실린 인간과 동물골수세포에 관한 실험에서 스피박은 연구결과 알콜의 피해는 매우 근본적인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포가 죽어버리지않고 다만 성장이 방해되는것이므로 복구할수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며— 요한바오로2세 교황이 24일 바디칸성전에서 베드로광장에 모인 4만신도에게 강복을 내리고 있다. (바디칸)

학부모교양강좌

한맘한글학교

토론토의 한맘한글학교(교장 허영식)는 학부모 교양강좌를 연다.

◆10월31일(일) 상오10시반~11시반 「자녀교육에 대하여」(신복균박사 부인)

◆11월7일(일) 상오10시반~11시반 「교회(간추린 생활교리)」(김비오)

5분간의 落書 낙엽의 계절

홍기만

◆홍지만씨

그처럼 붉게 가을을 불태우던 단풍 이파리 몇잎이 흩날리기 시작할 무렵이면 우리는 불현듯 가을이 지닌 서글픔을 느낀다.

이제는 조락(凋落)의 계절, 낙엽철이다.

낙엽과 함께 가을이 가고 있다. 모든 것은 지며 또 떨어지고있다. 따스함도 가고, 햇빛마저 바래가고 있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움기 마련인가 보다. 사라져 가는 것에의 애뜻함이 가슴한 구석에 스민다.

〈낙엽의 빛깔은 부드럽고, 모습은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려져 땅위에서 구른다. 시몽,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어린 시절 낙엽길을 걸으며 누구나 한번쯤은 외워보던 구르몽의 『낙엽』—.

하지만 이러한 싯귀는 지금의 우리들에겐 이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이민도시의 포도 에 뒹구는 낙엽을 보고 별다른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민도시의 낙엽은 그저 낙엽일 뿐이다.

낙엽이 뒹구는 포도가 코너스토어의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젊은 여인은 구겨진 지폐로 꽉 채워진 캐쉬레지스터의 키를 두들기며 「돈이 낙엽처럼 흔하군…」 미소를 지으며 하루의 매상에 만족한다.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순수함을 이야기하던 소녀는 낙엽처럼 흔한 캐쉬레지스터 속의 지폐뭉치를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 이민주부로 변해 있는 것이다.

언제고 새로나온 반짝이는 주화를 볼 때면 이른 아침의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떨어지는 황금빛 은행 낙엽을 연상했었고, 금방 그리운 사람이 찾아올 것만 같아 가슴 설레이던 소녀시절이 있었음을 까맣게 잊은 카운터 뒤의 여인은 새 주화뭉치를 깨며 「잔돈이 많아서 편리하게 됐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이민도시의 낙엽은 그저 낙엽일 뿐이다.

낙엽을 불사르며 저물어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던 낭만은 아마도 사치스러운 추억에 속할게다.

햇볕이 투명한 가을날, 시골 과수원의 낙엽진 앙상한 사과나무에 매달린 몇알의 빨간 사과가 시리도록 파아란 하늘에 그림처럼 선명하던 고국의 가을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가을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다.

독서, 사색, 방랑, 고독의 계절…. 바쁜 이민생활이지만 잠시나마 낙엽철에 묻혀보는 것도 전혀 덧없는 일은 아니리라.

20일자 「잃어버린 마음」의 마지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자바한 「돈의 철학」을 2세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민세대의 「잃어버린 마음」을 그대로 넘겨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金聖鍾 작

29분의 1 ①

〈96〉

손톱속 카피트조각 제조회사 찾아내…

안개작전은 짙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피살자가 위조등록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해서 혼란은 가중되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었다.

적선지대에 대한 수색은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대대적인 수색이었지만 인력만 낭비했을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센터=105본부는 초조한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본부장은 본부요원을 배로 늘렸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막강한 수사팀이 편성된 것이다. 본부요원은 15개 전담반으로 나뉘어져 각부분별로 세밀한 수사를 다시 전개했다.

제1반에서 5반은 적선지대반경을 2킬로까지 확대하여 다시 수색에 나섰다.

제6반과 7반은 출국자, 그중에서도 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제8반과 9반은 외국인 입국자들가운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제10반은 각 제약회사를 방문해서 청산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했다.

제11반은 각 병원을 방문해서 청산이 유출된 경위가 있나 없나조사했다.

제12반은 전국의 RH(-)형 보유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제13반은 모(毛)씨 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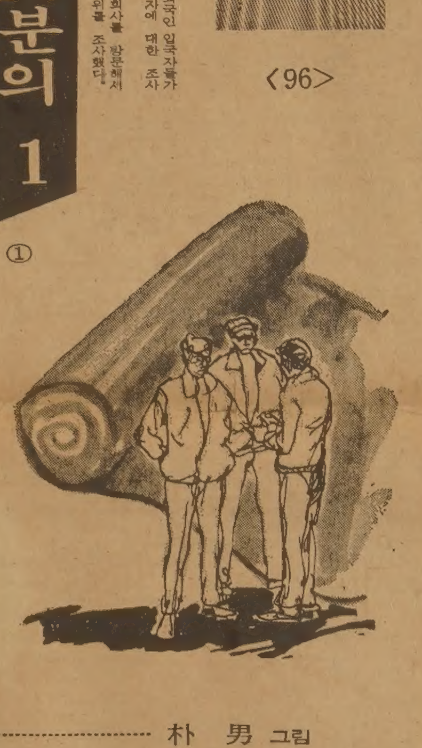
제14반은 전과자들중 위조전문가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제15반은 피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카피트조각에 대해 내사하기 시작했다. 김준호형사와 마인은 제15반 소속이었다. 반은 김형사가 반장직을 맡고 있었다.

12월27일 오후 1시 조금 지나 15반은 어느 카피트제조회사로부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이건 우리 회사가 미국과 합작으로 만들어낸 아라비안 카피트 조각입니다. 최신제품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습기가 배지도 않고 때가 타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회사간부의 설명이었다.



朴男 그림

『값은 얼마나 됩니까?』

『평당 5만원에 시장에 나가고 있읍니다.』

『많이 나갔읍니까?』

『약간 나갔읍니다. 제품이 나온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지금은 선전단계지요.』

『제품은 어떻게 나가고 있읍니까?』

『판매점에 직접 내보내고 있읍니다.』

수사요원들은 카피트도매점과 백화점을 찾아나섰다.

다행히 각 판매점에서는 구입자들의 주소를 기록해두고 있었다. 물건의 덩치가 커서 배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밖에 판매전략상 주소를 알아두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었다.

그날 오후 5시 서울 전역에 흩어졌던 제15반 요원 10명은 한곳에 모여 최종집계를 내보았다.

『모두 몇장이 팔렸어?』

김반장이 마인을 향해 물었다.

『지난 두달 동안 서울 시내에서 팔린게 모두 합쳐 2백15장입니다.』

『믿을 수 있는 숫자일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중 장부를 만들수도 있지 않아?』

『그점을 고려해서 협조를 부탁했읍니다. 이건 세무조사가 아니라 살인사건 수사니까 숨기지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숨김없이 말해주었읍니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TAKE ME TO THE HILTON HOTEL, PLEASE

일반적으로 항공사 앞에서 시중의 큰 hotel까지 왕복하는 limousine(리무진:공항 왕복 전용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차비가 적게 들지만, 가는 곳이 그런 hotel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면 아예 처음부터 cab(캡:택시)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단 tax-를 타게 되면 「~까지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Take me to~의 표현을 사용해서 만일 힐튼호텔이 목적지라면 Take me to the Hilton Hotel, please.라고 말하면 된다.

운전수에게 주는 tip은 보통, 금액의 10~15%정도이고 「잔돈은 가지시오」라고 할 때는 Keep the change.라고 하면 된다.

또한 공항에서 전화 연락을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동전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편에게 요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형편이라면, 교환 0번을 돌린 후 계속해서 원하는 번호를 돌리면 된다. 마지막에 교환양이 나와서 May I help you?(도와드릴까요?)라고 묻게 된다. 「상대방 요금 부담으로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이라고 하면 교환이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을 물은 뒤 상대편에서 요금을 부담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통화를 시켜준다.

동전을 이용하여 장거리 통화를 하는 경우 투입한 금액이 틀리거나 혹은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교환을 통해 예를 들어 30cents, please.(30센트를 넣으십시오)와 같이 돈을 더 넣으라는 지시가 흘러 나오게 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이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통화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A: Take me to the Hilton Hotel in Skokie, please.
B: O.K.
A: How far is it from here?
B: About five miles. It'll take maybe thirty minutes this time of night.
A: About how much will the fare be?
B: Around $8.00.

A:스코키에 있는 힐튼호텔까지 부탁합니다.
B:알겠읍니다.
A: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B:약 5마일 정도 됩니다. 밤중 이맘때면 아마 30분쯤 걸릴 겁니다.
A: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B:8달러정도 될 겁니다.

※take:여기서는 require(필요로 하다)의 뜻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에 해당한다. Ex. This work will take two hours. 이 일은 두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 로 잔 치 감사의 말씀

지난 9월25일에 있은 경로잔치에 성황을 이루게 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래와 같이 성금과 경품을 기증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과 기관및 단체

총영사관	$500	체육회 임원일동	500
실협(차선검)	300	호남향우회(장영대)	100
번영회(장순채)	200	동우회(원영신)	200
외환은행(최승락)	300	해병전우회	100
조흥은행(이원순)	300	대한부인회(양혜신)	50
한일은행(한철환)	200	이화여대 동창회	50
무역인협회(이영현)	100	의사 황운린	200
신용조합(한상훈)	100	진명여고 동창회	300

황대연	$200	이근우	50	신영식	50
박인순	500	임동순	50	최영호	50
김용일	500	이영일	100	이인용	100
강공선	100	윤여화	50	하주용	50
이훈모	100	유호섭	50	송기선	50
이찬희	100	황인주	100	노녹일	50
장영채	100	황용현	50	장기철	50
정병조	50	한국관	100	김옥자	50
성나유	30	오기환	50	이장성	50
김혜숙	50	오정숙	50		

■물품기증자

고려식품, 동양식품, 한국식품 (본점, 동부, 서부, 미시사가) 합동 라면 50BOX, 쌀5포
고순복 화장품(400불 상당)
장추선 선물 3 점
송병헌 선물 3 점
김종조 선물 1 점
조기섭 한약 5 점
신의상사 비누
한밭식품 내의10벌
DY 식품 상품
김희삼(OK 오토바디) 과일(200불상당)
변의섭 상품 2 점
이건영(브램톤스포츠) 상품 2 점
강신봉 김장 2 세대분
양규성 벽시계 1 점
김만구(가구점) 의자 1 점
김흥량 시계 1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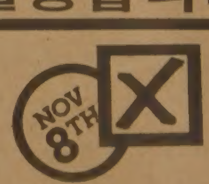
■떡 안식일교회, 갈보리 〃, 한인장로 〃, 연합교회, 영락 〃, 천주 〃
■나물 서머나감리교회, 새한장로교회

(무 순)

1982년10월

—— 한인회 회장 박인순

—당신이— 결정합니다



시선거 11월8일 월요일

다음 3년임기의 시당국 대표자와 교육위원회 의원을 11월8일 선거사무실에서 투표합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그들의 공약을 살펴보십시요.

11월8일 투표때까지 아직 시간이있읍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말씀하십시요…

1982년도

추계한인친선남·여배구대회

◆종 목 : ◉남자 대표부(연령제한없음)
◉여자 대표부(연령제한없음)
◉남자 OB(전원 30세이상)
◉여자 OB(전원 25세이상)

◆일 시 : 1982년 11월20일(토) 오전 9시

◆장 소 : West Humber Collegiate Inst. (1675 Martingrove, Etobicoke)

◆신청및 문의 : 923-3846(문영환)
755-9925(임송철)
755-0308(정기섭)

◆신청마감 : 1982년 11월18일(목) 주장회의까지

주장회의 일시및 장소

▲일시: 11월 18일(목) 오후7시30분
▲장소: Brandon운동구점(337 Bloor St.W.)
▲참가비: 60불 균일

토론토 배구협회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제8차 정기총회
협동조합 설립안 만장일치통과

82년도의 사업을 마무리짓고, 신년도의 사업을 설계하는 제8차 정기총회는 10월22일 하오 8시 예정대로 Inn on the park호텔에서 121명의 회원과 최승낙외환은행장을 비롯,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되었다.

김이열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차선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동안 저희들 집행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지나고 보니 회원 여러분의 기대만큼 보답을 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1년 가일층 노력하여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낙 외환은행장은 "실협의 성장은 3만 교민사회의 성장과 직결되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포 전체의 실협이 되도록 키워 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성년기에 들어선 실협의 시금석이 될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당부 하면서 외환은행은 이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김영대, 이형인, 함덕상, 장재춘, 김봉근 제씨에 대한 공로패가 증정된 후, 작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은 별다른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되었다.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협회의 명칭을 「경제인 협회」로 개칭하는 안을 놓고 많은 회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1차투표에서는 59대40으로 가결 되었으나 안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3분의 2를 의결선으로 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9, 반대 35로 3분의 2선에 미달하여 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기타 개정안은 일괄 통과되었다.

「경제인 협회」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하여 차선겸 회장은 "타업종에 종사하시는 교포 실업인들을 폭넓게 흡수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많은 회원 여러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남은 1년간 더욱 협회 자체의 내실과 협동조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타업종에 종사하시는 교포실업인들의 실협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고 논평하였다.

이어 이춘수씨의 제안설명으로 심의 된 협동조합 정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세밀한 사항은 「발족준비위원회」를 구성, 일임하기로 결정되었다.

끝으로 이사선출은 서준경, 서동준, 최복기, 박경택 제씨를 이사선임위원으로 선발하여 이사를 선출하게 하고, 12시40분에 폐회하였다.

◆좌로부터 Tulloch, Lock, Graden, 「다께사끼」 Bradshaw 제씨

「회원주소록」 발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제작한 「회원 주소록」이 발간되었다.

156면에 간편한크기(11cm×18cm)로 만들어진 이 주소록은 회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수록되어, 상점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22일 총회장에서 배부받은 많은 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 주소록은 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배부된다.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원주소록
(창립 10주년 기념)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발행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627A BLOOR ST. WEST, TORONTO M6G 1K8
Phone: 533-7923 4 / Hot Line 533-8344

파나소닉경품 추첨
—8 개가게 당첨—

지난 25일 상오11시 협회사무실에서는 파나소닉회사의 판매주임인 Neil Graden씨와 「마츠시다」전지회사의 「다께사끼」 수출주임등 다수 참석하에 10월분 8개의 상품(계산기) 추첨이 실시되었다.

파나소닉사의 대표는 'K.B.A.를 통하여 이미 198개 회원상점과 거래를 텄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과의 거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이날의 당첨자는 아래와 같다. 당첨된 회원은 협회사무실에서 "계산기"를 찾아가기 바란다.

◉#100—23
Wexford Convenience 곽세용
◉#508
Dairy Mild Convenience 안정섭
◉#155
Cedar Hill Variety 이홍규
◉#202
Open Door Variety 정태섭
◉606
D & H Variety 김동혁
◉671
Don Dixie Variety 유영갑
◉124
Eastown Smoke & Gift 이기성
◉124
Eastown Smoke & Gift 이기성
(이상 8개 회원상점)

요크아이스크림 Promotion

요크 아이스크림에서는 2리터크기 아이스크림에 대한 스페시얼을 연말까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한다.

◉상 품 명—York 2리터 아이스크림(카튼)
◉특별가격—개당 $3.00 또는 4개에 $12.00
◉기 간—10월4일~12월31일
◉기 타—현금환불쿠폰발행
(2리터 아이스크림 2개의 U.P.C.표시와 별도 발행한 쿠폰을 주소성명 기입하여 보내면 $2.00을 환불)

〈법률상담〉
유 서 ⑧

Ralph M. Levine
강 공 선 역

◇강공선 씨

유서를 작성한후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서란 사망전에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꿀 수 있고, 새로 작성할 수도 있다.

★유서의 정기적 재확인

시효가 지난 유서는 없느니만 못하다.

출생, 사망, 결혼, 기타 재산상의 급격한 변동은 유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유서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1. 유서작성후에 결혼한 경우
2. 아이를 낳았을 경우
3. 직계가족중에서 결혼, 이혼, 또는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4. 변호사가 유서를 기초한 이후에 중요한 재산을 매입 또는 처분했을 경우
5. 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6. 유언집행자(executor)가 이사하였거나 어떠한 이유로 일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경우
7. 살고 있는 주(province)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8. 본인이 타주로 이사했을 경우

일단 유서를 작성한 후에는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자주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아무런 변경도 할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지만, 뜻밖에 꼭 변경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음번에는 유서를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입장료 위탁판매키로
태권도협회 후원사업으로

협회는 캐나다 한인태권도협회(회장 서정길)를 후원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사업을 후원하는 뜻에서 11월20일에 실시되는 제5회 캐나다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입장권을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일반에게 위탁 판매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입장권—어른 $5.00
아동(12세미만) $3.00
◉판매수수료—50%

상오11시30분에 시작하여 하오7시에 결승전을 하게 되는 이 대회는 4700 Keele St.의 York대학체육관에서 실시하며, 금년도의 실협후원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연중행사로 Maple Leaf Garden에서 개최 할 계획이라고 한다.

티켓과 포스터, 그리고 반신봉투가 회원상점에 우송되므로 판매 후 회원은 판매총액의 50%와 남은 티켓을 반신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돌려 보내면 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가장싼 가격으로 김치를 팝니다
주문김치환영
서부지점 ☎ : 243-9544
해밀톤지점 ☎ : 1-385-1485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본 실업인협회는 10월22일 제8차 정기총회를 깃점으로 실협의 문을 활짝 열고 그로서리업외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교포 실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Super Killer .... 임태호
변호사 .... 강찬영
Fine Design .... 조덕남
미도파백화점 .... 장추신
College Hardware .... 강창흡
City Sign .... 홍진표
Oshawa Motor Court .... 박태식
P.A.T. Supermarket (한국식품 동부지점) .... 이순복, 김홍우
Oriental Castle(동궁) .... 최기주
Munami Trophy & Sports (무나미 트로피) .... 이기훈
Honey Dip Donut .... 강준남
Millwood Flower Shop .... 원장호
Donut Shack .... 조충원
Dawe's Florist .... 이동환
Barton Premium(한국식품본점) .... 이민복
Country Blue .... 임분옥
Arirang House .... 장순채
Bentley's Donut .... 정영식
Clover Printjng .... 위정남
Mini Bar .... 최정희
Park Bros. Tackwondo Ins. .... 박주삼
Geo—Bugi Trading Co. .... 이정석
Donut Castle .... 호민식
Sunborne Producte Ltd. .... 이인용
Seoul Travel Service .... 최동주
Royal Donuts .... 이양섭
Maya Beauty Salon .... 김금순
Best Travel Service .... 유지원
Moon's Auto Trim & Glase Ltd. .... 정해문
Dutch Mill Donuts .... 강영자
Top Printing Co. Ltd. .... 박종남
Sunny Shoppe .... 서춘원
Albion Art Gallery .... 박승동
Oriental Bazaar .... 최미자
W.S.K. Foods Market (서울식품 서부지점) .... 박인조
Century Burgers .... 유광한
Huronia Restaurant .... 임문호
Big Mack's .... 장추국
Oriental Bazzar .... 이청자
P.A.T. Oriental Food Market (한국식품 Mississauga) .... 손영곤
Sammy's Restaurant .... 서동준
Brandon Sports Ltd. .... 이건영
Amarl Fruit & Flower Shop .... 김덕배
Fun Donut .... 양운택
High Park Submarine .... 강용중
Foster Cafeteria .... 이순자
Korean Village Restaurant(한국관) .... 이기항
Bloor & Bathurst Hardware Co. .... 변의섭
Kim Kor Insurance Brockers Ltd. .... 김종조
The Big Turtle(거구장) .... 이한영
Korean Video Centre .... 손병헌
Rig Seven Trading Co. .... 김영철
Village Chicken Plase (내고향 통닭집) .... 이종소
First Korean Food Trading Co. .... 김덕기
Canada Mink Centre .... 류동훈
Asian Health Food (아세아한방) .... 조지섭
Harbin Herbs(하르빈한약방) .... 서춘봉

中共조종사 自由中國 亡命허용

外務部 人道主義·국제慣行따른 조처

機體는 狀況따라 處理

빠른時日내 身柄 인도

정부는 지난16일 미그19機를 몰고 서울로 탈출, 망명을 요청한 中共軍소속조종사 吳모씨 (25)를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自由中國으로 인도하는 한편 機體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외무부가 23일 발표했다.

외무부의 鄭基鉦 대변인은 이날상오 中共軍 미그機조종사및 기체처리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조종사는 한국도착 즉시 자유중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관계당국에서 조사한결과 그것이 본인의 완전한 자유의사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정부방침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또 機體처리문제에 관해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中共軍조종사의 자유중국 인도결정은 인도주의및 국제관례에따라 조종사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처리방침에 관해 한관계자는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만큼 조종사의 신병은 소관부처의 법적절차가 끝나는대로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자유중국으로 보내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를위해 자유중국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교섭을 벌이게될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사건의 처리내용을 中共측에 사전통보한 사실은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기체처리문제에 관해 『앞으로의 상황변화와 국제적관행등을 예의검토해가면서 신축성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당초의 기체소유국인 中共측으로부터 기체반환의 공식요청이 있을경우 이에 대처할 방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李範錫외무장관은 22일 국회외무위에서 『미그機망명사건과 관련해 中共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받은바 없다』고 말했었다.

◇지난16일 中共軍조종사가 몰고온 미그19와同型機.

한국정부에 感謝 自由中國서 謝意

【臺北AP=聯】 자유중국정부는 23일 한국정부가 망명 중공조종사 우·중·퀜 (25)을 臺北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음을 확인하고 한국정부가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해설

機體처리 해당政府고유權限 中共서원하면 返還가능성도

정부가 中共軍 미그19機 조종사의 서울로의 탈출망명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主權국가로서의 입장과 人道주의에 따른것으로 국제관행의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특히 이번결정은 망명조종사 자연인과 機體에 대한처리를 분리함으로써 국제관행 즉 누구나 쉽게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조종사 吳씨를 自由中國으로 보내기로 한것은 외무부의 발표에서 볼수있는 것처럼 吳씨가 한국에 도착한 즉시 自由中國으로의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행위가 재난에 의한 긴급피난이나 不時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사에 입각한 것임이 관계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체에대해 정부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상황변화와 국제적관행을 예의 검토해가며 신축성있게 처리해 나갈것임을 비쳤다.

領空을 불법침입한 기체처리는 전적으로 領土國의고유권한으로 국제관행을 고려, 소유국에 반환해주거나 領土國이 소유하는 방안이 있을수있다. 그러나 기체를 당초의 소유국에 반환한 국제적인 사례가 없지 않으나 中共측이 기체반환을 공식요청해올경우 이에 응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된다.

지난76년 미그25機를 몰고 일본에 비상착륙, 망명을 요청했던 소련의 벨렌코중위의 경우 일본정부는 벨렌코를 출입국관리령과 총기관계법, 항공법등 위반으로 입건조사를 한뒤 그의 의사대로 조종사는 미국에 보내고 기체는 완전히 해체, 조사한다음 소련으로 반환했었다. 【河長春기자】

政府·民正합의

秋穀값 7.5% 引上

收買量은 8백만섬으로

정부와 民正黨은 23일상오 民正黨舍에서 고위정책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秋穀수매가및 수매량에관해 협의, 수매가는 작년대비 7·5%인상하고 수매량은 8백만섬으로하되 연내에 7백만섬을 수매하고 내년3월에 1백만섬을 추가로 수매하기로대체적인 합의를 했다.

정부는 내주중 閣議를거쳐 이를 확정, 발표할예정이다. 이같은 인상률에따라 올秋穀수매값은 80㎏들이 한가마에 5만6천70원이 되는데, 정부는 올해에도 신품종을 우선 수매할 예정이다.

金珞泰대변인은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수매량 8백만섬은 금년생산량 3천6백만섬의 22·2%로서 80년과 81년의 수매비율15·4、18·1%보다 높은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하오 국회經科·農水産委연석회의에서 수매가를 작년對比 7%인상하고 7백만섬을 수매할방침이라고 밝혔었는데 국회측의 요구에따라 0·5%와1백만섬씩 上向조정키로 한것이다.

朴鍾文농수산부장관은 이날간담회에서 『올해 벼식부면적이 작년보다 별로늘어나지않았고 또 벼를 늦게 심은곳이있어 벼수확량은 보도된 것만큼 풍작은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黨政정책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金竣成부총리 朴농수산장관이, 民正黨 측에서는 李載瀅대표위원,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원내총무, 陳懿鍾정책위의장, 대변인, 朴鉉兌정책조정실장, 千永星국회經科, 李範俊농수산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쌀增産은 헛口號"

民韓黨서 聲明

民韓黨의 金珍培대변인은 23일 秋穀收買價에대한 성명을 발표, 『우리民韓黨은 20%인상에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토록 이미 촉구한바 있거니와 적정한 수매가를 보장해주지 않는한 증산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부는 온갖 구실을 내세워 쌀값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즉각 지양하고 民韓黨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했다.

退職한 3級이상 公職者

67명 政府산하團體 취업

퇴직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로서 작년1월이후 재취업한사람 67명중 대부분은 재직당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단체의 임원이나 고문직에 추대돼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에 제출된 총무처자료에 의하면 재취업한 전직고위공직자들은 ▲문교부의 경우 대한교련교원공제회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정교과서주식회사등에 ▲문공부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영화진흥공사, 한국문화재보호협회▲건설부는 주택공사나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상공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시는 지하철공사등에 각각 취업했다.

자료에 의하면 또▲재무부 간부였던 전직고위공직자들은 시중은행이나 한국감정원 ▲철도청간부들은 홍익회와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등 관련기관에 각각 취업한것으로 밝혀졌다.

日 自民黨총재 票對決

中曾根·河本·中川·安倍4후보 選擧戰돌입

徹夜 3者회담 결렬

【東京=宋孝彬특파원】 새총재선출을 위해 1주일째 협상을 벌여온 일본自民黨은23일새벽 단일후보 옹립을위한 12시간의 철야절충도 실패함으로써 나까소네(中曾根)고오모또(河本) 아베 나까가와(中川)등 네후보가 본격적인 예비선거전에 돌입했다.

오는 11월24일에 실시예정인 예비선거에서는 자파당원수가 가장 많은 고오모또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선거에서는 다나까 스즈끼등 주류가 미는 나까소네후보가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나까소네총재의 탄생이 확실시되고있다.

나까소네후보는 23일 하오 후보합동기자회견에서 美日안보조약을 주축으로 서방진영의 우호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웃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행정개혁과 재정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의 정치적 포부를 제시했다.

國會 五輪特委열어

국회는 23일상오 李源京체육부장관, 金溶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과 沈[illegible]서울시올림픽추진기획단장등을 출석시킨가운데 올림픽特委를열고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서울市劇場協會 (郭貞煥 회장外) 1千4百萬원

在日本不二興行(株) (李慶晚 대표) 1千10萬원

◇郭貞煥씨

◇李慶晚씨

◇金東煥씨

在日동포母國사찰방문단 3백23만원

瑞進産業(株) 金東煥대표 外 2백10만원

多玉纖維(株)임직원 74만원

駐韓美軍勞組富平지구 70만원

大巡眞理會 (서울 중곡 5지구) 69만원

東洋유리纖維 (株) 35만원

在美佛教사절단 30만원

大巡眞理會 (大田 東區 천동·효동) 17만원

〃 (大田 中區 부사동) 12만원

〃 (大田 東區 신안동) 11만원

大巡眞理會 (大邱 신천 2지구) 16만원

〃 (大邱 복현 1지구) 11만원

〃 (大邱 황금 주공아파트) 10만원

〃 (大邱 노원 7지구) 12만원

大巡眞理會 (大邱 수성 7지구) 12만원

〃 (大邱 평리 5동) 12만원

〃 (大邱 사일동) 16만원

〃 (大邱 효목 1동) 12만원

구독신청은 533-2361

▲서울시劇場協會(회장郭貞煥) 회원一同=1천4백5만원 (個別명단2면) 【日刊스포츠접수】 ▲在日本不二興行(株) 代表取締役 李慶晚씨=1천10만원 ▲在日동포母國사찰방문단 182명=3백23만3백원 【釜山지사접수】 ▲瑞進産業(株) 代表理事 金東煥씨外 임직원 一同=2백10만9천1백45원 ▲多玉纖維(株) 대표이사 李鍾榮씨外임직원一同=74만6천원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부평지구 (지부장 최희동)=70만7천원 (하사관분회=2만8천원, 냉동분회=2만4천원, 교역처분회=31만6천5백원, 인쇄창분회=1만5천원, 44공병분회=6만3천원, 55[illegible]분회=7만원, 피엑스제1분회=5만원, 공병분회=4만9천5백원, 소방분회=2만4천원, 정수분회=1만3천원, 오정분회=3만4천원, 피디오분회=2만원) ▲(종단) 大巡眞理會 서울중곡동제5지구대표 이광우씨外 道人一同=69만원 【富平지국접수】 ▲東洋유리纖維(株)=35만원 ▲在美南北統一世界平和佛教使節團團長 崇山行願스님外26명=30만원 【大田지사접수】 ▲(종단)大巡眞理會大田東區천동·효동지구대표 이용세씨外道人一同=17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田中區부사동지구대표 김소웅씨外 道人一同=12만원 ▲(종단)大巡眞理會大田東區신안동지구대표 송규섭씨外道人一同=11만원 【大邱지사접수】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신천2지구대표 정하분씨外 道人一同=16만6천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복현1지구대표 손놈미씨外道人一同=11만원 ▲(종단)大巡眞理會大邱지부황금동주공아파트대표 감기식씨外道人一同=10만원 ▲(종단)大巡眞理會大邱지부 노원7지구 대표조은주씨外 道人一同=12만원 ▲(종단)大巡眞理會 大邱지부수성동제7지구대표 추경숙씨外道人一同=12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평리5동 대표 전일분씨外道人一同=12만4천5백원 ▲(종단) 大巡眞理會 大邱지부 사일동 대표 장순애씨外道人一同=16만2천원 ▲(종단)大巡眞理會 大邱지부 효목1동 대표 정삼남씨外道人一同=12만5천5백원

◇在日동포 母國사찰방문단.

◇在美 南北統一平和佛教 사절단.

社会漫評

갈수록 食欲좋고…

레바논에 武器제공

美·佛질서회복위해

【베이루트AP=聯】 미국은 최근 3개여단을 무장시킬수있는 규모의 무기를 레바논에 제공키로 동의했으며 프랑스도 6억프랑어치의 군장비를 레바논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레바논국영TV가 22일 보도했다.

레바논국영TV는 미국·프랑스·이탈리아3국순방에나섰던 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을 수행, 취재한 自社 특파원보도를 통해 그같이 밝혔다.

이 TV방송특파원은 그러나 뉴스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地平線

刻露淸水—。 이슬에 맺혔던 가을의 영롱함이 한참 눈부시다. 계절이 흐른다. 가을의 흐름이 갑자기 바빠진듯 날씨가 차가와졌다. 서리는 겨울의 전령 구실을 한다. 며칠전 서리가 내렸다는 소식이 있더니, 오늘은 霜降이다. 옛 중국의 24節氣에 따르면 한로와 상강이 묶여 季秋가 된다. 앞으로 보름쯤 지나면 입동이 온다. 벌써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에겐 季秋라는 표현보다 晩秋라는 단어가 풍겨주는 어감이 한층 정겹다. 가을의 詩情이 들리기때문이다. ▼가을은 시의 계절이다. 딱딱한 산문조차 시로 들린다. 「우물가에 오동잎새/바람에 나부끼고/옆집 다듬이 소리 가을이 분명코나」 중국의 시인 白樂天은 머리맡에서 달빛이 소리 없이 흐르는 가을밤을 노래했다. 하이네의 秋聲도 소곤거린다. 「바람은 나뭇 잎에 떠들썩 대고/전나무는 가만히 속삭인다」 시의 가을에 시집이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반갑다. 대형서점의 시집판매대가 붐빈다. 많은 시집이 한번에 2천~3천권씩 출판되고, 거의 재고가 없다고한다. 정서를 살찌우려는 마음의 여유가 菊香처럼 은근하다. ▼가을은 책과 글을벗하기 좋은 계절이다. 책은 한시대, 한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비춰주는 거울과같다. 책속엔 우리현재와 미래가 담겼다. 우리는 「책의 빈곤」속에서 살아온지 오래다. 이빈곤이 미래와 연결될까 두렵기조차한 실정이다. 베스트셀러는 있어도 良書는 흔치 않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 내일의 경영을 위해 출판인들이 건전한 윤리적 신념과 사명감을 가져야한다는 출판경영자 세미나의 소리도 이가을에 귀담아 둘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은 또한 그리움의 계절이다. 松江 鄭澈은 千里의 임을 이별하고 잠못들어 한다고 가을의 그리움에 애를 태웠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지의 얼굴이 가을이 되면 더 크게 가슴에 와 닿는다. 한장의 편지가 그리움을 달래준다. 글은 배우고 또 이용할때 그 값이 살아난다. 편지쓰기운동을 굳이 벌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은 자주 쓰는것이 좋겠다.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晩秋—。 쌀쌀한 날씨에 쫓기지 않으며, 따스함과 풍요로움을 지니면 가을은 한층 보람이 넘칠줄 안다. 그것이 「생각하는가을」을 살아가는 슬기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 · 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저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구독신청은
533–2361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大韓航空만이 每週 23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뉴욕↔서울 直行便 週4回 運航

매주 화·목·금·일요일 JFK공항 출발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서울로 매일 출발하며,
週4回(月·水·金·土)는 NONSTOP便을
운항합니다.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편명 출발일	KE011 月水金土	KE001 火木土日	KE015 火木日	KE050 月水金日	KE007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12:20	▽		02:15
호노루루		13:20		02:20	03:4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illegible]:30	06:40	06:50	06:30
도착일	火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木土月	木土日火

편명 출발일	KE012 月水金土	KE002 月水金土	KE016 火木日	KE060 火木土日	KE008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8:4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09:50	08:10
앵커리지		12:10			10:4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2:20
도착일	月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火木土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임.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아침한때

「恐龍의 悲運」을 아는가

財閥은 국민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가라

金成勳 〈중앙대교수〉

Ⅰ、다이노사르의 悲運

한때 地球上에는 다이노사르(恐龍)라는 파충류가 크게 번창하였다。中生代의 이동물은 食慾이 엄청나 주변의 먹이를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고 소화시켰다。번식력도 대단하여 날로 그 식구가 늘어났다。그러다 보니 날로 몸집이 커져 무서울이만큼 肥大하게 되었다。마침내는 몸움직임이 鈍化되고 늘어난 體軀와 食口數에 비하여 주변의 먹을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이르렀다。그리하여 지금은 어린이 만화나 童話정도에 무섭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恐龍의 一族은 서로 먹이를 다투다가 아예 지구상에서 멸족해 버린 것이다。

최근 國會와 신문지상에서는 우리나라 財閥의 지나친 肥大性에 대해 論難이 크게일고 있다。작년중 10大財閥의 賣出額이 國民총생산액(GNP)의 42·8%、30大재벌의 그것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附加價値 비율로 볼때 10大재벌이 國內總生産額(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3년의 5·1%에서 78년엔 10·9%였으니 과연 그 成長率이 눈부시다。이토록 괄목할 팽창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草食、肉食을 구별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문어발式 번창만을 꾀하다 보니 지금은 몸을 가눌수없이 肥大해버린 雜食性企業版圖를 그려놓기에 이르렀다。

다이노사르의 멸망은 그 一族의 悲運과 化石化에만 그치고 말았다。그러나 행여 恐龍化한 재벌기업의 어느 하나라도 잘못쓰러질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고만다。우리國民경제에 차지한 비중에 비추어볼때 그피해가 일개 企業群에 그치지않고 애꿎은 서민대중에 직접 끼얹어지기 때문이다。

Ⅱ、財閥의 生成과 發展

하필 국내경기가 不況인 이시점에 財閥경계론이 다 무어냐는 주장이 있을법하다。우리는 항상 問題가 터지기 前엔 이렇다할 대비책이 없다가도 정작 事件化가 되면 그때가서 그 是非를 따질때가 아니다。다음 機會에 선처하겠다는 式으로 문제나 사건의 처리를 자꾸 미루고 핵심을 피해 온것이 茶飯事였다。따질것은 제대로 따지고 對策은 先後 緩急을 가르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正道이다。

財閥기업의 生成 발전역사를 보면 적이 더욱 명백해진다。해방이후 6·25이를 거친 50~60年代에는 民族기업을 육성하자는 슬로건아래 각종 경제施策은 오로지 재벌형성의 뒷바라지를 위해 드러 내놓고 수발하였다。헐값의 敵産管理및 拂下로부터 시작하여 美國잉여농산물도입처리상의 헐값放賣、公定換率과 실세 환율 差益의 계속적인 供與、이른바 나하산式 금융特惠、借款도입、은행융자의 나눠먹기式 利權授受、三粉三白폭리사건등 援助와 금융과 借款에얽힌 脫法과 非理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財閥이 이땅에 呱呱의 聲을 울렸고 불가사리 모양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불쑥불쑥 성장하여던것이다。

우리의 선량한 서민대중은 그럴 때마다 民族기업이 커야 우리나라 경제가발전하고 재벌이 번창해야 서민경제가 나아질것으로 굳게 믿어 왔다。전통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희생쯤은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타이르며 재벌의 성장에 共同體的 희망을 걸었다고 봐야 할것이다。한편에서 實業資本운운하면 괜히 배가 아파 하는 소리라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

70年代의 이른바 高速經濟、國際化시대에 접어들어서는 經濟能率과 國際競爭力을 높이기 위해「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를 도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大企業 優先정책을써야 한다는것이 각종 경제시책의 슬로건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커야 原價도 낮아지고 생산성도 경쟁력도 높아져 輸出은 물론 국민경제가 나아질수 있다는 것이다。그리하여 정부의 각종 投融資시책과 制度금융은 오로지 企業의 大型化、대기업에의 便宜제공、금융특혜、稅制上의 특혜、수출입貿易지원、각종 행정적뒷받침등 이른바 全力投球「올코트프레싱」의 일관이었다。금기야 우리 財閥중에서 세계 5백大企業群에 대여섯개나 랭킹되기에이르렀다。

이때도 서민대중은 마치 자기일이나 된것처럼 讚嘆을 아끼지 않았다。비록 재벌의 문어발에 치여 中小企業이 쓰러져 갔어도 그건 경제효率이 낮고 경쟁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自責하고 덮어두었다。

Ⅲ、代替利潤과 財閥

그런데 어느날 하루아침에 국민들은 「아그것이아니었구나」、아니「그것이 바닐지 모른다」로 생각이 바뀌지기시작했다。코페르니쿠스的인 서민思考의 전환이었다。

자기자신이 재벌기업과 함께있고 그곳에 所屬돼 있다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음을 어느날 갑자기 깨닫게 된것이다。

나와 絶緣이 된 남은 어디까지나 남인 것처럼 나의 발전과는 한동의 관계가 없거나、나아가서 오히려 내몫을빼앗아 가는 相對에 대하여는 그것이 아무리 큰 재벌기업이든 분노의 대상이 되게마련이다。張女人 사건을 보고 놀란 가슴들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金利引下조치、法人稅등기업편에의稅制개선안을 보게된것이다。거기다최근에는天文學的인빚(서민의필요에優先하여 빌어간돈)을 지고 있는 재벌들이 銀行에서 빚을 더 내어 銀行을 사가려 들고있다。

供給사이드의 經濟學이다뭐다하여 내놓은 정부시책이 모두 企業에 대하여、그것도 대기업에다만 계속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과 저축을 쏟아 붓는 것 같은 幻影에 사로잡힌 것이다。서민과 근로자 농민은 실질 구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에대해선 이렇다할 획기적인 조치(賃金引上、중소기업보호、농산물價格 支持등)들이 자꾸 뒷전에 밀리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財閥기업의 生成發展史는「代替利潤」으로 충만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것이다。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업종에 利益이 좀 붙을라치면 곧 大企業이 차고들어와 시장을 독점해 버린다。중소기업이 막상 무얼 해야 먹고 살지 점차 상업의 방향이 묘연해지고있다。그리고 은행문턱이 높은 이유가 미리 대기업에서 돈을 꿔갔기 때문임을 듣게된다。국가경제의 死活이 달린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희생했던 代價가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싼 國內가격이며 종합수출商社의 손실을 국민경제가 어떤형태로든 메워줘야함을 깨닫게 된다。재벌기업에 대한 금융、外換、稅制및 무역支援이란는 것이 자칫 국민대중 또는 중소기업、농축업이 받아야할 몫을 代身한것이었음을 인식하게된다。

명색이 국민적 기업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정부가 독려를 해도 여전히 기업公開(國民化)를 꺼리고 一家族 소유형태를 고집하고 있는데 크게 의아심이 생긴다。금리引下조치결과 중소예금자의 파이(所得)는 더욱 적어지고 그것도 돈을 많이 빌어쓴 大기업에는 幾천억원의 파이로 늘어 낫음을 본다。나의 利益을 代身한 代價利潤이 오늘날 有數財閥의 성장을 구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국민대중은 이제까지의 期待感 所屬感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Ⅳ、어느 財閥의 述懷

그런데도 재벌기업은 할말이 따로 있다。『내밑에수만명 먹여 살려야 할 雇傭人과 그 가족이 없다면 당장에라도事業을때려치우고싶다。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만가지고도 우리 가족이 일생지금같은 고생(고용인을 먹여 살리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없이 살수 있을 것인데…』라는어느재벌의 개인적인述懷를 들은 적이 있다。듣고 보니 재벌기업이야말로 없어는 안될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애국애족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재벌기업이 不實하거나 不正을 범하여 쓰러진다고 가정할때 정말 큰일이다。일개 그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한 구석이 휑하니 구멍날지경이다。이른바 벌(閥)라야 벌 수 없으리만큼 국민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는것이 오늘날 세계에 그 類例가 없는 우리 재벌기업의 영향력인것이다。

Ⅴ、경제정책의 도덕성

民主正義福祉사회의 건설과정에서 경제정책의道德性만따지다가는자기심장을 도려내야할듯 오늘날재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肥大해버렸다。다이노사르를 계속 살려나가자니草根木皮가 살아 남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탐욕스런 食慾을 조용히 잠재우기도 힘든다。

이건 덜레머에서 빠져 나올수있는 關鍵(Key)은 여설적이게도 財閥당사자에 주어져 있다。다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賞讚받는 국민의 企業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다。국민에게 財閥기업에의 所屬感과 共同體 의식을 심어주는 社會的 公企業윤리의 확립과 행동만이 남아있다。그것은 재벌스스로가 선택해야할 길인 것이다。

高聲·호통·訓戒등 選良들 千態萬象

國政논의 國會常任委의 현장

○…中盤熱戰에 접어든 정기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로가 뒤질세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은행民營化와 短資회사설립에 재벌기업들이 뛰어들었다고 경제의 財閥化를 경계하는 발언이 여의도의사당에 메아리지고 있는가하면 농촌과 농민에대한 푸대접是非가 불붉기도 했다。뿐만아니라 의료보험 一元化와 교육정책、國防費、외교현안문제와人權수사、그리고 光州교도소에 있던 朴寬賢군의 死因등 국민의 궁금증과 관심을모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다。

本會議 對정부질문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들이 홍수처럼 터져나오고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루는 의원들의 질의공세나 이에 대응하는 각료들의 답변도 각양각색으로 珍奇한 화제들을 많이 뿌렸다。

회의를 꾸려가는 실태도각 위원회마다 달라서 與野간의 신경전으로 회의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珍問奇答으로 폭소극을 연출하기도했다。

○…내무위에서 趙鍾益의원(民韓)은『舊正을「敬老의 날」로 해 공휴일로하라』고 朴賛炫총무처장관에게 을러대다 朴장관이『2重과세不可』라고 하자 화를 벌컥 내며『왜 장관만 반대냐。안된다 하지말고 계속 연구、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달라。할거냐、안할거냐』고 욱바질러 朴장관은 급한 김에『연구、검토하겠다』고「억지대답」을 하기도。

「直問直答」인 경우도 적지 않다。運營委에서 金正秀의원(議同)는『정화위속에 정화될 인물 없느냐』에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은 터놓고『있다。適別로 조사해 연말까지 조치하겠다』고 시원스럽게 대답。

外務委에선 李萬燮의원(국민)이『외무부안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있다』고 말한데 대해 李範錫외무장관은『그간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호흡할수있는 시간이 부족했다。앞으로 호흡이 잘 되도록…』이라고 답변。

經科委에서는 의원들의 質問에 金竣成부총리의 愚答이 엇갈려 폭소가 연발。

金鍾河의원(국민)이 최근의 잦은 경제정책발표를 빗대어『정경에 나오는 경제정책이라도 믿지 못하겠다。국민의 신뢰를 얼마만큼 회복했다고 보느냐』고따지자 金부총리는『상당히 회복된것으로안다』고 평면적 답변。

이어 洪思德의원(民韓)이『현재의 金利수준에 맞춰 國債를 발행하고나뒤 金利가 上向조정되면 國債매입자가 손해를 보게되어있는데 이를 보장할수 있느냐』고 질의하자『國債는 그때그때 매매되기 때문에 손익을 예측할수 없다』고 대답했다가 洪의원으로부터『그러면 누가 國債를 매입하겠느냐』는 질문이 따르자 재빨리『그러니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말아달라』고 애걸하여 웃음。金부총리는 또『1년전 稅金을 先納하면 세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李炯培의원(民韓)의 추궁에『너무 복잡하여 앞으로도 1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할것 같으니 좀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

週末政局

10여년간 정부의 지도로「1道1酒」의 원칙을 지켜오던 소주市場은 정부가 酒精의 배정량을 늘리고 지역별제한경쟁을 허용하자 시장점유율 40%가 넘는 眞露가 지방시장을 蠶食함으로써 법정으로까지 번진 술싸움이 財務委까지 번졌다。

朴完奎의원(民韓)은『점유율 1%의 지방회사가 어떻게 眞露와 대항할수있느냐』李敏燮(民正)、林采洪(議政)의원등은『1道1酒가 바람직한 소주업계의 지도행정』이라고 주장、의원들간에 소주논쟁을 빚기도。

秋穀價를 다룬 22일의 농수산 경과위 연석회의에서는 農政을 원망하는 개탄섞인 질의가 속출。

大豐속의 秋穀價결정은 농촌의 秋哭歌『경제기획원은 石頭를 넘어선 鐵頭』(愼順範의원 議政)『역대 농수산부 유일한 박사장관도 행정부에 들어와선 눈칫감이가 됐다』(金珍培의원 民韓)는 直擊彈에 金永光의원은『농민의 피맺힌 恨의 하나가 外米도입이요、또 하나의 恨은 쇠고기 수입』이라고질의가 아닌 개탄의연발。

農政不在와 농촌경제의 不公平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金竣成부총리는『공업화와 균형을 맞춰야하고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의 경향을고려하면 결코 농업을 무시할수없다』는 黨爲論으로 農政有在를 주장。

○…豫決委에서는 民正黨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작게 개조했다는데대한 불만의 표시로 民韓黨의원들이 만만치않게 공세、작년 정기국회에서 넓은 참의원 회의장을 사용했던 豫決委는『오붓한 토론장』을 만든다는 民正黨의 구상에따라 새로 改造된 좁은회의장에서자리도의원들이정부측과 마주앉았던民韓黨은 民正黨의 그런 구상을 逆利用하여 있단 一問一答식 질의를 계속 공세。

보충질의란는 이름으로 民韓黨의원들이 공세가 계속되자 民正黨의원들은『너무 심하다』고 不快感을 표시했고 금기야는 분위기가 긴장되어 정회를 두차례씩 되풀이。

20일 총무처에 대한 內務委의 질의에서는「공무원特採」문제및 이에대한 장관의 답변을 놓고 장시간 停會를 하며 실랑이를 벌였는데 金宗鎬위원장은 밤8시부터 4시간반가량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을 25번이나 오가며 조정끝에 무마(?)에 성공。

○…「자료부실」소동중엔 아예 보고자료를 통째로 보이콧당한 사례도 여러건。지난15일 내무위에서 서울시가 심야회의에서 현황보고에 나서자마자 몇페이지 넘기지도 못하고 金鍾哲의원등 民正黨의원들로부터까지「자료부실」을 이유로퇴짜를 맞아 6일뒤에「재시험」을 치르는 욕을 봤는가하면 18일의 商工委에서 종합하보고중「자료부실」의 질책을 받고 한차례 정회소동까지 빚은후에 13일뒤에 간신히「再試」를 통과하는 촌극을빚었다。

또 交通委에선 체신부가 黃秘 洪性宇의원등 주로여당의원으로부터 자료부실이란 호된 추궁을 당한뒤 崔淳達장관이 막바지에『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建設委에선 건설부산하 단체장들의 不參을 놓고 의원들이『데려오라』고 호통、산하단체장들이 올때까지 장시간 停會소동。

李範錫장관의 인사말까지도 유인물배부가 늦어지자 의원들은『카피하는데 하루가 걸려야하느냐、몇시간이걸리느냐』고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이날 외무부가 의원들에게 돌린 3급비밀등 對外秘로 분류된 보고자료중엔 부시美부통령의방한、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및 캐나다방문등이 포함되어 失笑를 빚기도。

특히 保社委는 야당의원들이 의료보험 一元化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保社部보고를 거부하여 3일간이나 空轉되는 기회를 남겼다。결국 이문제는 총무회담으로 넘어갔으나 아직 이렇다할 결론은 나오지않고있다。

○…상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의원들의 潛在영향도점차 표출되고 있다。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유의 개성을 바탕으로 民意의 대변에 열심인데 그스타일은 각양각색。

의원들의 질의스타일을세분해본다면 고성·호통型、강의型、돼기型、폭로型、훈계型、칭찬型、카타르시스型、변사型등 각가지。

시선을 끌만한 호통型은 張聖萬 洪性宇 林在正 金文元 金台植 朴完奎 李洙範의원등 야당쪽이 두드러지고 鄭기型은 李敦浩 丁時宋의원등 여당쪽이 많은편이다。질문보다 자기자신의 소신을펴는 강의型으로는 학계출신의 崔昌圭 金春洙 許景九의원등이 꼽히고있고、『한국重工業이 의원을 초청해놓고 자리도 안주었다』『은행장이 만나주지도않았다』는 柳在熙(民韓)·崔明憲의원(民正)처럼 발언중에 불만을 터뜨리는 스타일도있었다。

○…각료들의 답변스타일도 의원들처럼 다양하다。

金竣成부총리는 국회출입빈도가 잦을수록 답변태도가 세련되어간다는게 국회주변의평。그는 답변이 곤란한 질의가 있을때마다『연구검토』보다는『이해해달라』『앞으로 그런질의는 제발하지말아달라』고 애걸했으나 자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연구하겠다고 밝히지만「연구하겠다」는것은「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는것으로 알아달라』고 주석을달기도。

22일 예결위에서는 외무위에서달려온李範錫외무장관이 급한김에옆자리의盧泰愚내무장관이준비해놓은답변자료를 자신의것으로 잘못알고 읽어내려가다 질의자인 洪思德의원으로부터『묻지 않은 부분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충고를 받기도。

「財閥금융支配」공격땐 與野없어

서울市보고「자료不實」로 보이코트 당하기도

○…그동안 어지럽게 발표됐던 재정·금융정책을 다룬 財務委는 與野의원모두가 헛바람이 가득들어있는 고무풍선을 터뜨리듯 크고작은 경제문제들을들고나와 앞서 국회본회의의 對정부질문 보다 더 각광을 받았다。

이중 재벌기업의 은행주식매입과 短資회사참여 문제가 최대의 이슈。

첫정책질의가 시작된 21일 첫번째 타자로나선 郭正出의원(民正)의『엄청난 부채를 은행에 대해서 안고있는 재벌기업들이 부채상환대신 은행빚을 늘려가며 은행을사들이고있다』는 질타로 始發된 재벌기업의 은행買入에대한 공세는 모든의원들의 공통된 主메뉴로 등장、보충질의까지 곁들여 시끄러운장터를 방불케했다。이어 李載根(民韓)、趙炳鳳의원(국민)은『재벌이 은행빚을내어 은행을 사고있다』『재벌기업에게 稅制·金利上의 특혜를 주었더니 돈장사만 하고있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이같은 은행民營化 論爭은 22일에도 계속됐고 여기에이미 內認可된 8개短資회사의 재벌기업참여문제까지곁들여져 財務委는 재벌과 은행·短資회사로 이어지는「돈소리」로 요란하다。朴鍾寬의원은『거액의 은행빚을 지고있는 재벌기업들이 은행돈을 얻어 은행을 사고 短資회사를 만들어 금융참여가 아닌 금융占據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통박하고『재벌기업의 출자금을 은행대출금 상환으로 轉用하고 이들에대한 內認可를 취소하라』고 육박질했다。【政治部】

메아리

海外로 나갈때·

여행을 한다는것은 한가지 脫皮라 할수있다。舊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누구나 이따금씩 훌훌 털어버리고 길을 떠나고싶어지는 것은 허물을 벗고싶기 때문이다。그 허물은 舊習일때도 있고 偏見일때도 있다。이탈리아의 극작가 골도니는『母國을 떠나보지않은 사람은 偏見에 차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40만명이 외국여행을 떠났고 금년 들어서는 8월말현재 그 수가 30만명을 넘는다고 외무부가 국회에 보고했다。脫皮의 행렬은 자꾸 길어진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고독을 여행으로 달랬다。일생동안 외국여행을 27회 떠났고 통산해서 10년가량을 여행으로 지냈다。

덴마크의 오덴세에 있는 안데르센의 生家를 찾아가보면 그가 여행때마다 들고다니던 가방이 전시되어있다。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방이다。그걸을 유심히 보면 밧줄한토막이 놓여있다。구경꾼들은 난데없이 밧줄은 왜가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만 알고보면 안데르센의 여행가방속에 들어있던 것이다。그는 여행중 호텔에 불이 났을때 창밖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언제나 이 밧줄을 가지고 다녔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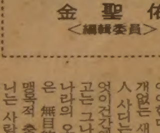
유럽여행을 처음 떠나는 친구 하나가 무엇을 준비해가면 되느냐고 물어왔다。이때 안데르센의 밧줄생각이 났다。요즘도 가끔 큰호텔의 화재가 투숙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니 밧줄이 영 퇴물이라고만 할것도 아니다。그러나 안데르센때보다는 호텔들이 高層化했으니、50미터、1백미터짜리 밧줄을 대형 트렁크속에 서리서리 넣어가라고 권할수는 없는 노릇이다。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때 병에든 고추장이 필수 휴대품이었지만 지금은 유럽에서도 웬만한 큰도시에는 다 한국식당이 있으니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그러면 선물을 채워올 빈 가방만 하나 들고 나가면 된단 말인가。아니다。나는 그 친구에게 꼭 가지고 가야할 것이 하나 있다、西洋史 책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유럽여행중에 서양사책을 가방속에 넣고 다니는 우리나라사람을 나는 한사람도 본적이없다。생각해보면 이상한일이다。서양사쯤은 학교에서 배운것을 훤히 다 외고 있다는 말인지、그나라 역사같은것은몰라도 식당 가서 밥사먹을수는 있다는 말인지、하여간 그 豪氣가 놀랍다。내 권고에 그친구는 관광안내책자를 하나사면 거기 관광명소에 대한 역사적소개가 다들어있지않느냐고 말한다。그러나 역사는 생선자르듯 토막내어지는것이 아니다。지느러미 한조각가지고 고기의길이를 잴수없다。그리스의 文明史를모르는 사람에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설명해봤자 안내인이 설령 한국인이더라도 외국어 듣듯이 답답할수밖에 없게된다。

그 친구는 또 바쁜 여행중에 호텔방에서 책읽고 앉았을시간이 어디었겠느냐고 말했다。

호텔에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사람은 여행을 떠나기전에 집에서 읽으면 된다。아무리 권했댔자 평소의 습성으로봐서 집에서 책 한권읽을것 같지 않으니까 가방속에 넣고 가라는 말이다。서울에서 파리까지 비행시간이 18시간 걸린다。잠자고 밥먹을 시간 다 빼고 이핑계 저핑계에 시간을 쪼개주어도 책 읽을시간은 얼마든지 남는다。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읽는것이 길이 안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거리 비행기안에서도 책을 펴들 생각을 안한다。그 버릇을 깨자는 말이다。유럽을도는동안 비행기타고 기차 탈 시간은 또 있다。현지에서 읽는 한권의 역사책은 학교에서 배운 어떤 두꺼운 책보다 저울위에 달아서 기울어질 것없다。여행이 수업이라면 책이있어야한다。『지식없는 여행자는 날개없는 새와같다』고 페르시아의詩人 사디는 말했다。여행목적이 무엇이건간에 그나라의 역사를 모르고는 그나라의 오늘을 알수없고 그나라의 오늘을 배우지못하면 여행은 無目的이 된다。호기심이라는 맹목적 충격에 이나라 저나라를 다니는 사람은 여행자가 아니라 방랑자다。우리나라에서는 방랑자에게 여권을 내어준적이 없다。

금년에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이 換金해 가지고나간 돈은 1인당 1、341달러라고 한다。귀중한외화지만 이들이 여행중에 그나라 역사책 한권을 읽고 왔다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金聖佑 〈編輯委員〉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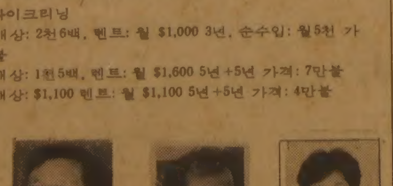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윈치-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팍. 4 Br.Rm. 2층쎄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톤&빅토리아팍. 3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29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ㅈ 문의하세요.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286-1548(R) M3B 1Z3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초점 인플레險山넘으면 沈滯의 늪…牽引車도 없는 세계經濟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6면 林鍾乾 기자 崔海雲 기자
◇7면 黃昭雄 차장대우
◇8면 文昌幸 기자

紙面안내
7면‖「豫算제도」의 問題點은…與野의意見과 各國의 制度
8면‖現代史 현장 ①…한국 民族主義의 原點「安重根篇」

大恐慌 다시 올까

世界휩쓰는 失業恐怖

◇비를맞으며 취직하기위해 줄서 기다리는 일본의 대학졸업생들。선진국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일본이지만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10·1%로 1930년대大恐慌이래 4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표와 때를맞춰 레이건미대통령의 아들이 실직수당을 타기위해 줄을섰다가 기자에게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아들의 실직은 화제거리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失業사태란는 중병을 앓고있는 세계경제의 단면을 보여준 것같다。

후진국은 물론 한때 완전고용까지 꿈꾸던 선진공업국가들까지 10%선을 웃도는 失業이란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모든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직업이 주어지고 실업이 범죄로까지 인정되는 공산권국가도 이병에 걸려있다。

오늘날의 실업사태는 예외를 인정치 않는다는데서 공포감을 더해주고 있다。

인플레와 실업은 언제나 쌍벽을 이루며 인류최대의 經濟惡으로서 경고되어왔다。

70년대 세계경제를 위협했던 高인플레는 서서히 고개를 숙인 대신 대공황의 비극을 연상케하는 실업사태가 발생한것이다。

잘산다는 나라들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24개국의 전체실업자수가 3천1백만명이상을 넘어섰는가하면 南美의 개도국중에는 노동력의 50%가 실업 또는 半실업상태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언제나 있게마련인 실업인데 왜 세계는 그토록 실업을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것인가。

大恐慌이후 최대危機

OECD 24개국서만 3千萬명넘어
技術革命까지가세…해결책없어 고민

오늘날의 실업은 종래의 실업유형과는 달리 선진공업국의 심장부, 한때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던 대형공장에서 번지기시작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복지사회의 상징이었던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1년전의 7·4%에서 10·4%로 걷잡을 수없이 치솟을 정도로 실업은 빠른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처방이 없다는것이다。

물론 실업은 70년대 세계경제를 맴돌았던 오일·쇼크를 깃점으로해서 촉발된 장기적 불경기, 각국이 치솟는 인플레를 잡기위해 취했던 저성장, 긴축통화정책으로 金利가 뛰고 투자가 위축, 재정상태가 허약한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데 그원인을 찾으려고 한다。실업이 불경기·긴축정책 때문만이라면 경제이론상 경기를 호전시키면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업현상은 너무나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있어 묘책이 나오지않고 있다。산업구조 자체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있기 때문이다。단적으로 표현하면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로보트나 정교한 컴퓨터가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고용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는것은 당연하다。

지난날 공업경제의 척추역할을 했던 철강 조선 자동차 섬유등 대규모 노동인구를 창출하던 노동집약산업이 퇴조, 그 중심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로보트로 대체되는 추세로 인해 블루칼러(미숙련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미국의 경우 78년이후 이같은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하던 1백만명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기계에 영원히 빼앗겼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업계다。78년 미 자동차업계종사자 1백90만중 3분의 1이상이 직업을 잃었으며 지난7년간에 걸쳐 약 4백50만개의 자동차부속공장이 문을 닫았다。

올해만도 미국최대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도 3개공장을 폐업하거나 매각했고 폐업직전의 공장도 4개가 있다고 발표했다。이와함께 앞으로 10년간 1만4천대의 로보트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다。세계의 유업계를 대표했던 뉴욕시는 지난5월 사상 처음으로 이도시의 非제조업종사자수가 제조업종사자수를 넘어섰다。

미국 블루칼러의 고용률이 지난 3년간 10%나 감소된 3천만명을 밑도는 현상은 단적으로 『블루칼러의 위기』를 말해준다。

반면에 컴퓨터등 고도의 기술산업 서비스 정보분야의 일자리는 차츰 증가를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인더스트리(産業이후)시대』라고 말한다。

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로렌스박사는 『우리가 한때 농업에서공업으로 이전했듯이 지금은 공업에서 초정밀 서비스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화이트칼러(사무직종사자)와 서비스업종사자가 지난3년간 5%나 증가했다。그러나 서비스업, 고도의 기술만을 요구하는 초정밀산업은 대규모 고용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또 서비스분야는 재생산능력이 없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의 실업사태는 노동자들의 高賃金요구로 인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즉 고용주들은 외국의 수출품에 맞서야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위해 컴퓨터로보트에 의한 자동화공정을 서두를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25%의 노동자를 감원, 로보트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1백%를 감원하고 공장을 폐쇄시킬것인지』를 결정할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블루칼러의 실직이 늘어남에 따라 勞組도 해고와 공장폐쇄를 피하기위해 임금동결이나 심지어 임금인하, 복지혜택양보등을 감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에서 금년한해만해도 85개의노동협정이 체결됐는데 대부분 임금인상이 아닌 직장確保에 목적을 둔 勞組의 양보사항들이 었다。블루칼러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勞組도 로보트앞에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실업문제는 미국에서뿐아니라 유럽제국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특히 지난60년대에 유럽에 유행한『베이비붐』을 타고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 일자리를 찾고있는데 노동수요는 뒤따르지 않고있다。

영국은 전체노동력의 14·3%인 3백30만명이 실업상태로 선진공업국중 최악을 기록하고있다。산업혁명의 발생지가 산업이후 시대를 맞아 그희생물이된 셈이다。영국대도시 빈민가의 경우 젊은이의 약50%가 실직상태로 언제 어디서 폭동을 야기시킬지도 모를 사회적위험수위에 처해있다。

프랑스도 8·3%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미테랑대통령은 실업문제를 해결키위해 6백80개의 직업안내소및 성인교육센터를 세우는가하면 취업확대를 위한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7만개의 새일자리를 마련할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업자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것같다。

일본은 지난6월 실업률이 25년만에 최고수준인 2·48%에 이르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난리를 피웠다。다른나라에 비해서는 행복한 상황이다。그러나 일본은 종신고용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실업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큰 것일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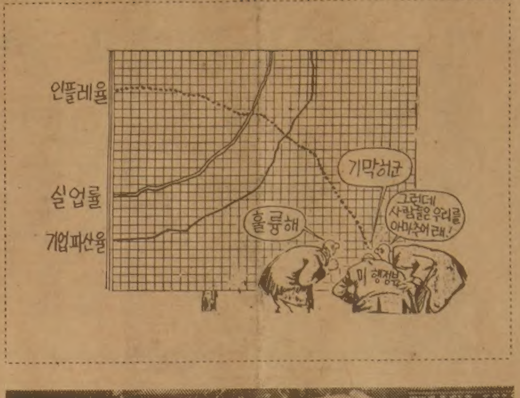
한편 이같은 실업사태의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앞날은 밝다』라고 록펠러재단의 버나드·앤더슨씨는 말한다。새로운 서비스업및 고도의 기술업종을 주축으로한 미래산업이 극적인 생산성증대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고용기회와 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60년대와 70년대의 출산율저하가 앞으로의 취업기회를 넓혀 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아무리 정밀산업과 서비스업이 증대되어도 노동집약산업보다는 고용기회가줄어들기 때문에 오늘날의 실업사태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극적인 해결방법이 없을것이라는 불투명한 견해를 내놓고있다。실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외에도 중산층의 몰락에 따른 빈부격차, 각종범죄, 가정파탄, 알콜중독, 아동학대등 사회를 병들게한다는점에서 인류최대의 公敵으로 지적되고있다。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없어 걱정이다。

【崔海雲기자】

構造的문제·金融危機로 投資기피



回復 기미속에 長期的 悲觀論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株價가 요즘 연일 치솟고있다。원래 株價가 오르는 것은 주식을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배당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뉴욕증권시장이 폭발적인 買受勢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일단은 장래를 낙관하는 무드가 장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이같은 株價상승을 놓고 레이건행정부는 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마침내 효험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레이건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인플레퇴치를 우선과제로 했다。이를 달성하기위해 통화를 억제하는 긴축정책을 폈고, 그결과 79년말 15%까지 이르렀던 미국의 인플레율은 지금 5%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위한 레이거노믹스는 달러의고금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했다。달러貨의 고금리는 달러로 빚을 얻어쓰는 많은 외국정부나 기업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뿐만아니라 미국내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어버렸다。그래서 세계적인 불황의 원흉이 달러의 고금리때문이란는비난이 세계도처에서 빗발쳤다。

미국은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다짐했다。지난 7월까지만도 16·5%에이르렀던 우대기업금리(프라임레이트)가 최근 12%선으로 떨어졌다。

미국의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FRB) 이사회는 금리를 더 내리고 조였던 돈줄도 풀것임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다。

미국증권시장이 불붙은것도 바로여기에 자극을 받았기때문。

그러나 株價의 폭등이 레이건행정부가 내세우듯이 온세계가 학수고대하는 경기회복의 조짐일수있을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대한 답은 불행히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그것은 株價상승에도 아랑곳 없이 기업활동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최근 공식 집계된 미국의 실업자는 1천1백30만명으로 10·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미국의 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를 넘어선 것은 41년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경제위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기후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생산은 10년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미국은 79년이후 3년째 제로 성장에서 맴돌고있고 비교적 탄탄하던 서독과 일본조차 재작년과 작년부터 각각 제로성장 대열에 끼었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 한 정권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위기는 석유상 구조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순환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도 기술혁신의 50년주기설에서부터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勞使의 갈등 그리고 세차례의 석유파동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어떠한 경제정책이나 경제이론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렇다할 효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證市는 홍청 연일 株價의 상승기록을 경신하면서 폭발적인 買受勢로 북적대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고대하던 경기회복의 조짐이냐 일시적인 투기심리냐로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1930년대 대공황때 소련은 그것이 자본주의경제의 말기증상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었다。그러나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빠진 지금에와서 떠들 구실이 없게되었다。

2차대전후 서방국들은 戰前의 국가간 경제적인 라이벌관계가 전쟁을 유발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이의 재발을 막기위한 브레튼·우드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탄생시켰다。그것은 어느 국가건 혼자서는 더이상 번영할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했다。

미국은 막강한 달러의 힘을업고 이체제를 과거 20여년동안 순탄하게 이끌어왔다。그러나 이제 누구도 이 체제를 이끌 힘을 잃고 있다。경제력은 분산되었으며 상호 의존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통제력을 상실하게된 가장 큰 원인은 70년대를 강타한 3차례의 석유파동에 있다。그러나 미국 경제는 석유파동이전 월남전때부터 이미 곪아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국민경제가 감당할수 없을만큼의 많은 돈을 전쟁에 쏟아 넣었다는 얘기다。

10년사이에 석유값을 10배나 뛰게한 석유파동이 세계경제를 빈사지경으로 몰아 넣었지만 그렇다고 그책임이 전적으로 석유파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선진국의 중앙은행및 다국적 민간은행들이 70년대의 인플레상승에 한몫을 했다。은행은 통화량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다。70년대후반기의 서방은행들은 돈의 濫發者였다。

인플레性 신용증여의 확대가 없었더라면 그때부터 세계경제는 불황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산유국들로부터 주체할수없이 돈이 들어오는 단기성 석유달러를 비산유국들에게 꾸어주기 경쟁을 벌였다。

못갚는 빚 40개국 5千억弗
경쟁적 輸入장벽…서로손실
뉴욕證市 株價폭등…일부선 樂觀論도

이같은 자금의 재순환은 서방은행들에게 엄청난 이자수입을 안겨줬다。이자수입에 맛을 들인 서방은행들은 스스로 대출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꿔주기에 바빴다。그결과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받는 빚을 주고말았다。

금융전문가들은 서방은행들이 직면한 신용위기가 지금의 불황을 전면적인 공황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현재 빚을 못갚고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40여개국, 채무액이 5천억달러에 이르고있다。

세계은행의 수석연구원인 찬드러·하디어사는 81년말현재 26개국이었던 채무불이행국이 올들어 東歐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여개국이 더 추가되었다고 말한다。

이수치는 정부차관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상업차관을 포함하면 채무불이행의 건수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일제히 침체에 빠지면 경제체제의 성격에 변화가 오게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상적인 불황하에선 한나라의 불황은 다른 나라의 호황으로 어느정도 충격이 흡수 된다。그러나 모두에 불황이면 서로가 불황을 가중시킨다。

예를들어 미국이 불황에 빠지면 서독으로부터의 수입이 준다。그결과 서독 경제에 후퇴압력이 가중된다。따라서 서독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게돼 미국경제에 후퇴압력을 가한다。

불황의 악순환은 신규투자를 막는 自動消火장치와도같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나 영국 서독 등의 보수정권들은 불황의 원인이 인플레 때문이라고 보고 인플레퇴치에 역점을 두어왔다。인플레퇴치에역점을 둔다는 것은 불황의 치유법을 기업가보다는 소비자에게서 찾겠다는 것과도 같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가 억제되고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현저히 향상됐다。

그러나 인플레의 산을 넘으니 거기에는 보다 험한 실업의 산이 버티고 있다。소비자들은 현재 그들이 실업상태이거나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필요에 직면하게됐다。지금의 상황이 30년대의 공황과 다른 점으로서 흔히 실업자와 빈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돼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실업보험등 복지제도가 실업의 경제적 충격에 완충역할을 하는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조차 실업자 1천1백만명중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은 그중 40%에 불과한 실정이다。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복지재정 고갈상태에 있다。

소비자들은 돈을 절약하기위해 값싼 물건을 찾게되며 시장이 개방된 나라의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가운데서 덤핑제품을 얼마든지 구할수있다。여기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쳐지게되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역전쟁이 유발된다。

한나라의 수출산업은 그나라에서 가장 여건이 유리한 분야인 반면 수입산업은 가장 불리한 분야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산업분야의 실업발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장 불리한 산업분야에서만 취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것은 서로에게 큰 손실이다。지금 세계에서 바로 이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林鍾乾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한국일보 특집판

診斷 與野에 들어본 나라살림點檢과 改善策

成案→審議→施行까지 「豫算制度」의 問題點은

常委豫審은 의미없어 公企業많아 財政부담

陳懿鍾 (民正黨政策委의장)

우리나라 豫算제도의 改善點은 대체로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국회의豫算심의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점과 둘째 豫算구조 그 자체의 개선방향과 그리고 세째 豫算의 집행면에서의 效率性 提高등이다.

현재의 국회예산심의절차는 정부豫算案이 국회에 移送되면 국회는 교섭단체별및 각常任委별 소속委員數를 감안하여 豫算決算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과 決算을 전담、심의하고있다.

이에대하여 일부에서는 과거의국회에서처럼 소관常任委에서 豫算案의 事前심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의 總括심사 및 특별위원회구성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각상임위의 事前심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과거 常任委는 豫算事前審査제도를 운영해왔으나 豫算審議를 종합적으로다루는 측면에서는 예산심의의 중복과 齟齬를 면키어려웠고 이제 豫決委중심의 예산심의제도가 정착화되고있는 마당에 이를 다시 옛날식의 상임委중심 예산심의제도로 복귀한다는 것은 개선된제도를후퇴시키는것이라하겠다.

구태여 외국의 예를들자면 美國下院의 歲出위원회、英國下院의 歲出위원회、프랑스의 財政위원회、日本의 豫算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모두 나라의살림계획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들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원회안에서 다시 분과위원회를두어 分科審議를 하기도하고 公聽會를 개최하기도 한다는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 立法활동과 관련、經濟立法의 多樣化·專門化에따라 의원立法도 활발해 여가는 추세는 환영할일이다. 그러나 各 개별立法과정에서 재정의 독자적확보를위한 基金의마련 또는 財政에서의 出捐金、의무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이러한 財政配分의硬直性을 固定化시키는 입법은 止揚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재정편성이란 可變的이고 流動的인것으로 예산배분의 平衡이 유지되어야하기때문이다.

예산편성구조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예산에 처음 적용한 零點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에 관한것이다. 이제도는 한마디로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범에따른 국가예산의 재정비체제를 갖추는 예산편성절차이다.

建國이래 지금까지 무작정 되풀이해왔던 前年度 踏襲방식의 예산편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시대의 예산편성은 새로운視覺에서 검토조정、되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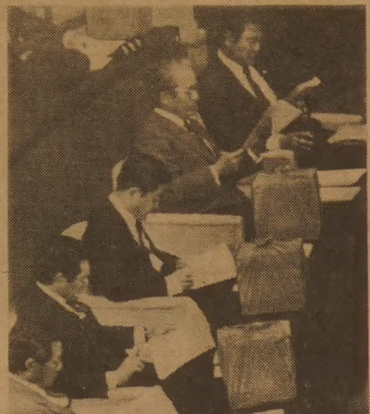
마치 옛날의書架에서 묵은 책을 전부 내려놓고 새로이 책을 配列정리하듯이 零點에서 출발、사업의 타당성을따져나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토는 예산單位單價의 現實化에 기초를 두고 事業案의 多數代案작성등 기술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1년안에 모든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정신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다루어 나감으로써 하나하나 확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것이다. 零點기준예산제도와 관련、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너무많이 亂立한 基金、기관에의 出捐金·보조금등은 零點基準에서 재정비·통합하여 필요불가결한것에 한하여 존속시키는 정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여기서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정부가 너무많은 公企業 내지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예컨대 민간기업활동과 중복이 되는 기관이라든가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업의 公企業들을 아직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公기업체들은 정부에서 과감히 민간에 拂下함으로써 재정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예산절약 그리고 효율적 생산성提高란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시책은 반드시 꾸준히 연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을 보면 국회에서 확정통과된 예산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이를 효율적 생산적으로 사용 지출하여야 할것이다. 法上 瑕疵가 없이 支出되어야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경비를 성과있게 效用性있게 사용하고 이에대하여 행정부안에서의 책임을질 줄아는 그런 예산집행풍토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정기국회는 지난해 나라살림의 결과를 點檢하고 새해의 국가운영을 심의하는 예산국회다. 사진은 국회豫決委모습.

踏襲式은 규모만팽창 超黨편성기구 바람직

金鉉圭 (民韓黨政策審議會의장)

우리나라예산제도상 가장 문제가된것은 前年度 踏襲主義방식에 의한 예산편성방식으로 막대한 歲出需要를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있었다.

특히 재정규모의 팽창을막을길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예산은 지난66年이래 例年의 追更예산까지를 감안하면 예산규모의 增加率은30%를 초과하여 왔다. 이와같은 배경과 예산은 그 고유의 「量出制入」의 原理에 결쳐 歲入예산규모의 팽창에따르는 歲入예산의 주종을 이룬 租稅로 增稅로 귀착되어 우리나라는 지난 66年이래 국민의 租稅負擔增加率은 年평균37.7%에 이름으로써 국민소득 증가율을 9·9%나 더 앞질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은 중세에 시달려 왔다. 漸增主義(Incrementalism)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前年度踏襲主義란 한마디로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前年度 예산을 바탕으로 다소간의 加減을 가하는데 지나지않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다한 통제이다. 우리 예산제도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사업의 능률적인수행보다는 공무원의 非違나不法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통제指向的인데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엄격한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이다.

한 회계연도의 經費는 當該年度의 歲入으로써 支辨하여야 한다는 會計年度독립의 원칙은 긴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원칙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狀況의 변동으로 이러한전통적인예산원칙에대해서많은비판이가해지고있다.

다음으로는 官業예산의 탄력성 부족이다.

현 예산제도하에서 정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예산 會計法을 적용하고 정부投資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豫算會計法을 적용하나 大學、國立病院、種畜場、矯導作業、國有林野管理와 같은 소위 官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고있지 않다. 官業中에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까닭에 다소 신축성있게 운영되는 사업도 있으나 국립대학등과 같이 一般會計로 會計처리를 하는 까닭에 극히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 많다.

이같은 예산제도의 문젯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첫째 예산안 편성기구의 超黨化이다. 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성 개입이나 그 압력을 최대한 배제할수 있으므로 資源配分 기능을 살릴수 있다. 나아가 歲出예산의 財源배분을 타당성、긴요도에 따라 배분할수있으며 이경우특히중요한것은예산의 黨利黨略化를방지할수있다.

둘째 일반회계 系列의 13개 기타 특별회계와 24개 基金의 합리적인 統廢合이다.

이들 특별회계와 基金은 효율성、경제성、공익성、정책성등을 감안하여대폭 정비統廢合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부담을 輕減하며 금융전환이 가능한 부문은 금융부문으로 돌린다.

세째는 追更예산편성의 규제다. 이는 예산회계법상 사유에 적합한것에 한하고 또한 歲計剩餘金은 追更예산의 歲入財源으로 계상할수없으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韓銀借入金및 糧特赤字補塡財源에 충당한다.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이어 是正할것은 심의제도다.

이는 한마디로 국회예산심의기능의 강화라고할수있다. 강화방안으로 첫째 豫決委의 常設化다. 둘째는 과거국회법처럼 일반常任委의 예산안 예비심의권의 復活이다.

세째는 의원들에게 예산修正동의권을 부여하는것이다. 즉 특정항목을 제외한 여타의 項目에 대해서 增額、減額 또는 삭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네째는 재정관계국정조사권의 활용이다. 豫決委는 특히 공공투자및 경제개발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언제라도 투자관리、계획、집행등에 관한 國政調査權을통해서 그 진상을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各國의 審議제도를 보면

한국 — 시비속에 豫決委전담 2년째

해마다 90일간의 會期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도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기능의 大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국회의 예산심의도 常委의 예산심의권을 부활하라는 야당의 국회법개정 주장으로 심의제도 자체에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豫決委가 예산결산 심의를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議政史上 처음으로 도입되어 첫 試運轉을 했던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도전을 거세게 받았다. 제도적인것 외에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심의 자체의 문제로서 예산을 과연 많이 깎을수록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史上初有의 超緊縮赤字예산이어서 어디에 손을 댈수도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삭감보다는 전체규모의 테두리안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한것이 이상적인 예산심의란게 與黨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선는 실제 稅收入에 맞춰 예산안을 재편성하자는 주장이고 아직도 빼야할 군살이 많은 팽창예산이라고 削減論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도의 예산과 재정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겠다는것이냐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不況에 허덕이는 국민의 擔稅능력도 고려하지않고 稅부담을 늘릴수 있느냐는 두개의 相反된 주장이 여의도의사당을 메아리치는 가운데 예산안은 選良이 들이대는 확대경속에서 심사되고 있는것이다.

구태여 지난시대와 비교하자면 자신의 지역구사업을 위한 예산을 따느라 血眼이 되고 하다못해 外遊티켓이라도 보너스로 따내려던 舊態의 예산심의와는 많은차이를 느끼게하고 있다. 이른바 나눠먹기 式의 止揚이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政治議案과 서로 맞물려 예산안통과시기가 정치문제로 突變하여 예산안 통과時限에 쫓겨 밤새 정치협상을 하는 풍토도 없어졌다.

所得稅의 人的공제인상이라는 것도 으레 예산국회의 막바지에서 與野간 정치협상의 祭物이 되곤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상황이나 풍토는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지않으면 안될정도로 정부與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變則정치를 했기때문이기도 하다.

多數黨과 權力의 横暴와 獨走에 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변칙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11代국회가 새국회로 定着단계를 맞이하려면 이런 舊態의 잔재는 말끔히 씻어내야할것이고 해마다 누적되어 전해내려오는 糧特赤字등 숱한 舊時대의 유산도 정리되어야할것이다.

秋穀價문제역시 일방적인 인상주장보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근로자의 입장을 같이 고려하는 발언이나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黃昭雄기자】

美國 — 上下院거치며 공청회

대통령이 每年1월중 (정기국회 개회후 15일이내)에 豫算書를 議會에 제출한다.

전통적인 관례로 예산안에 관한한 下院이 先議權을갖고있으며 下院歲出豫算委(위원55명)가 먼저검토한후 13개分科委에회부、본격적인 심의에들어간다.

이들 分委에서는 맨먼저 공청회를 열고 정부관계자등으로부터 증언을청취하며 해당 各省의 설명도듣고 보충질의등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친다.

이렇게해서 작성된 分科委案은 대개 無修正으로 歲出委에상정、통과되어 下院본회의로 넘어간다.

下院 본회의로 넘어온 예산안은 일반토의를거쳐 上院으로 移送된다.

上院에서의 심의절차는 전원위원회제도가 없다는점을 제외하고는 하원의 절차와같다. 즉 歲出委(위원24명)를 거쳐 담당분과위별로 공청회를 통해 심의가 계속된다. 이때는 주로 各省이 하원에서 삭감된 항목에대해 復活공세를 주로 펴는데 이어 세출예산위원회에서 재 2·3讀會를거쳐 上院案이 채택된다.

上·下院의 案이 틀릴때 兩院은 즉각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조정을 피하는데 이때 양자의 의견을 일치시키기위해 위원교체를 하더라도 완전합의를본다.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이 세출예산법으로 성립하기까지 대충 다음과 같은 修正기회를 거친다.

▲下院세출위가 예산원안을 기초할때 ▲하원전원위원회서 逐條심의할때 ▲上院세출위에서 下院통과안을 심의할때 ▲상원본회의에서 세출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할때 ▲兩院협의회에서 타협안을 마무리할때등이다.

英國 — 歲出委서 실질심의 決定

議會에 본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은 2월중순부터 3월말사이. 「議定費세출예산안」이란 이름으로 예산안이 下院에 제출되면 전원위원회인 歲出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한다.

歲出위원회에서 각항마다 심의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된다. 역시 전원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議決금액을 처리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을 國庫에서 지출을 승인하는 뜻의 형식적 의결만을 한다.

下院에서 세출예산심의를 위한 할당일은 매회기 8월5일이전의 29일간이다. 할당일에 심의항목의 선택권은 야당에게 주는게 慣行으로 돼있다. 할당일에 심의가 안된항에 대해선 소위 「기요틴」제도에의해 심의를 종결하고 일괄표결에 붙인다.

세출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대해 심의가 행해지나 이밖의 예산에의 현실및 경비절약의 가능성 有無에 관해 조사를하는 公共支出특별위원회가 있다. 이위원회는 49명으로 구성되며 6개의 部會로 나누어진다.

上院에서는 下院서 회부된 세출예산법안에 대해 修正權도 부결권도 갖고있지않다. 그러므로 兩院협의회의 제도도 없다. 또 예산안이 회기종료보다 1개월전에 下院을 통과해서 上院으로 송부된경우 1개월이내에 原案대로 상원을통과하지 않는다면 상원의 可決을기다리지않고 국왕의 裁可를 얻어 정식으로 법률로 성립된다.

의회에서 歲出·歲入의 兩위원회멤버가 임명되는 것은 11월 초순께다. 下院세출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이 심의되는 시기는 4월에서 7월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낼때에는 메모랜덤과 그밖에 재정설명서가 같이 제출된다.

日本 — 衆議院案을 더 重視

日本의 豫算案은 매년 1월하순 衆議院에 제출된다. 그것은 日本의 會計年度가 매년4월에서 시작、다음해 3월말에 끝나므로 議會에 2개월의 예산심의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것과 동시에 수상의 시정연설과 大藏相의 財政연설이 兩院의 본회의에서 행해지고 그후 이에 대한 2일간의 대표질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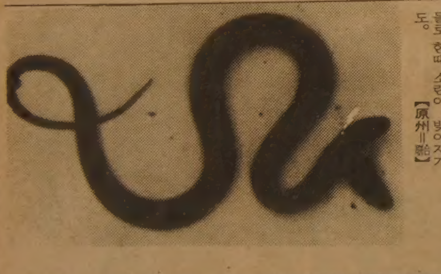
예산위원회에서는 정부측의 제안이유설명─총괄질문(1주일)─일반질문(3～4일)─공청회(2일)─분과위심의(1주일)─마지막총괄질문(1일)후 토론을 거쳐 의결된다.

衆議院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3월初 參議院으로 送付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 보통 3월말에 可決成立되며 兩院의 의견이 다를때는 兩院협의회를 구성하여 타협을 모색하지만 그래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衆議院의 당초의결이 국회의의결로간주되어예산이성립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特委로 매년 本會議의결을 거쳐 구성되는 豫決委가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를 도맡지만 日本은 豫算委와 決算委가 별개의 常設委員會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常委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를 전적으로 맡고있고 다른 常委는 예결산심의권을 갖고 있지않다.

특히 중요한 豫算委의 경우 우리 국회 豫決委와 마찬가지로 5개 分科委가 있어 예산을 중심으로 한 소관별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의정책질의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5개분과위중 1분과위는 대체로 皇室費、국회、재판소、內閣總理府의 예산을、제2분과위는 외무·대장·문부성을、3분과위는 후생·노동·自治省을、4분과위는 농수산·통산성을、5분과위는 운수·郵政·건설省의 예산을 심의한다.

주간女性



머리가 2개인 희귀 毒蛇잡아

강원도 原城郡 所草面 長陽里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옆 야산에서 原城郡 보건소직원 鄭雲培씨(32)가 머리가 2개인 길이 30㎝의 독사를 사로잡아 화제가 되고있다.

鄭씨는 20일 하오1시께 관내 출장을 갔다가 독사를 발견、깜짝놀라 가까이 가보니 머리가 2개인 이 독사는 2개의 머리사이에 나무가 걸려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안간힘을쓰다 지쳐있는것을 보고 사로잡았다는 것.

鄭씨가 이 희귀한 독사를 보건소에 가져오자 독사를 구경하러 몰린 주민·직원들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原州】

혼혈 金仁順주연 영화「黑女」공개

혼혈가수 金仁順이 주연한 영화「黑女」(감독 姜大宣)〈사진〉의 제작이완료돼 일반에게 선보였다. 혼혈아란 이유로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복수의 집념을 불태운다는 통속멜러영화로 신인 姜民哲이 공연했다. 소외당하며 살아온 혼혈아의 비애를 그렸다는데 金양은 이 영화에서 30여벌의 멋진 의상을 입고나와 눈길을 모으게한다.

성우 趙明男맡아 「전설 야화」해설

성우와 연극인으로 활동하고있는 趙明男씨(42)가 새로 시작하는 각 지방의 전설을 극화하는 「전설야화」의 해설자로 얼굴없는 배역을 맡게됐다.

혜은이 MC맡아 MBC「모두모두」

가수 혜은이가 24일부터 MBC·TV의 어린이 프로그램 「모두 모두 즐겁게」의 사회를 맡아 MC경험을 선언했다. 담당PD 洪星씨는 혜은이를 맞아 프로그램내용을 좀더 활기차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혜은이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오전10：30～오후7시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 [illegible]: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illegible]3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8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한국일보 (특집판)

목요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安重根學」을 바로 定立하자

歷史의 實像이 밝혀져야 韓日 새關係 展開

일본은 한국强占期동안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으로 한국을 합방한사실을 감추기위해 安重根의사의 의거를 교활하게 이용해 왔었다.

『明治國家의 元勳인 伊藤公을 흉한한분을 한국인이 살해했기때문에 보복적인 결과로 한국을 합방했다』든가 『그것이 계기가되어 합방의 기운이 높아졌다』는 식의 궤변을 합방후 30여년간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렇다면 安의사가 伊藤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한국을 합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설문을 제기할때,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대륙침략 야욕은 安의사의거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安의사 의거1년전인 1908년 일본정부는 桂太郎수상 주재로열린 閣議에서 이미 한일합방을 결정해놓고 있었기때문이다.

역사의 虛像과 實像, 그것을 밝히는 것이 韓日間의 새로운 관계展開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할때, 안의사연구는 하나의 큰 座標가 된다. 安重根學의 필요성은 바로 이 點에 더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韓國과 日本은 서로 善隣의 관계에 있는것이 두 나라의 이익이다. 그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安重根의 實像을 虛像으로 보는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인의 日本論, 일본인의 韓國論은 모두 安重根을 피해서는 뜻이 없어진다.

安의사의거 이후의 자료는 대부분 일본인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의사는 하르빈의거 이후 순국할 때까지 일본인의 구속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의사와 나와의만남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안의사의거후의 모든 일, 즉 의거때부터의 電文報告부터 警察訊問, 公判維持, 判決決定, 안의사遺族對策까지를 주관하던 「統監府 警務局」에서 근무하던 한 노인을만난데서 시작됐다.

『安重根처럼 日本人을 놀라게한 近代韓國人은 없다. 또한 安重根처럼 日本人으로부터 尊敬을 받는 近代韓國人도 없다』 그는 일본정부의 입장이야 어떠했든간에 안의사는 존경을 받았고 따라서 그의 유묵이나 사진 기타 자료들이 비밀리에보관돼 있는 것이 많으리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자기가 간직하고있던 사진24매를 다락구석에서 찾아 내 온것이었다.

이때까지는 간혹 일본을여행하던 安義士추모진가들에 의해 한두장 손에들어오면신문에 소개될만큼 귀중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안의사에대한 경찰신문부터 사형집행을 받을 때까지의 기록적 사진의 전부를 통여자 園木末喜가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한국의 義人의 자료를 일본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의 현실이기도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살고있는 나로서 또한 한국연구를표방하는 東京韓國研究院의 第一義的義務라고 생각 되었다.

안의사의거후 70년이지나서 당시의 新聞號外가 입수된것, 일제하의 엄한 체제하에서도 안의사의 유묵을 벽에 걸고 아침 저녁으로 香을 올렸다는 旅順刑務所의 看守가 간직하고있던 遺墨「爲國獻身 軍人本分」, 안의사공판때 관여 검사가 쓴 手記까지 은니했던 유묵「國家安危勞心焦思」, 武斷統治의 대표자 寺內正毅총독의秘書집에서나온「安重根自傳」번역본의극적인 입수등은 일본이 아니고서는 얻을수없는성과였다. 이런것들은 지금 서울南山에 있는 안중근의사추모기념관에 전시돼있다.

요새는 한국을 방문하는일본인들이 서울여행의 첫날에 안의사기념관을 찾는일이 늘었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정치가나 지식인이 더욱 그렇다는것이다.

그들은 안의사의 동상이나 영정앞에서 한국인을보다 더 경건한 절을 올리고 묵도를 한다고 한다. 동경 변호사협회의 회장을 지낸 鹿野琢見(가노·다쿠미)변호사는 中國땅에서 일어난 事件을 日本法院이 재판한것부터 잘못이니 模擬裁判이라도 다시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中野泰雄(나까노·야스오)라는 교수는 자기대학의「南北問題基礎理論研究프로젝트」의 第1號로「安重根과 日韓關係」라는 作業을 끝냈다.

그는「安重根은 現在에 이루어진 裁判이 앞으로 歷史안에서 審判받을것을 믿고 태연히 사형을 받았다」고하면서「安重根은 文化運動에서 義兵으로 가게한것은 헤이그密使事件이후의 日本의 對韓侵略政策이 빚어낸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안의사의「歷史속에서의審判」앞에서 나는 나자신이받을 審判에 부끄러움을 금할수없다.

한국인의 안의사에 대한 추모심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 추앙심만큼 우리는 그를 연구 하고 있는가? 그 추앙심이 내용을 충족시킬 만큼 자료 수집에 힘쓰고 있는가? 그가 남긴 교훈을 우리는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無罪요』할수 있는 용기가 솟아 오르지 않는다.

『내가 죽거든 국외(하르빈)에 묻었다가 조국이 독립되는 날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우리는 국제정세라는 이유를들어 아직껏 풀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 안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旅順刑務所의 罪囚墓地에 있다고 믿고 있을뿐이다.

金九先生은 해방후 귀국하여 순국 義士의 遺骸를 국내로 返柩하는 것을 그의 첫사업으로 삼았었다. 李奉昌, 尹奉吉, 白貞基 3義士의 유해를 孝昌公園에 나란히 모시고 그위에 안의사를 위한 假墓를 만들어 놓았다.

아직 안의사의 묘만이 虛墓다. 우리는 안의사를 위한 단독 祠堂을 아직도 지어드리지 못했다. 지방에 있는 順興安氏의 門中祠에 한 곳 모신데가 있을 뿐이다.

안의사는 순흥안씨의 안중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중근이다. 남산의 안의사기념관은 유물전시장일 수는있으나 경건한마음을 일으킬만숙한 장소는 아니다. 일본에는 위인을 모신 神社가 많은 것을 볼때 마다 나는 자신의 무력을 탄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안중근학을 위한 자료들을 集積할 터도 없다. 일본 외무성 古文書자료관이 가지고있는 안의사에대한 기록조차도 아직 복사하지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못한것이 너무나 많음을 느낀다.

안의사의 偉業에 비해 자랑할만한 보답을 아직 이루지 못한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최근 일본에서 또 한창 안의사의 유묵을 사겠느냐는기별이 왔다. 유묵이 서울로가야만 한다고 느끼면서 안의사가 말씀하신「歷史속의 審判」은 일본만을 질책함이아니라 나 자신을 꾸짖고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崔書勉

<東京한국研究院원장>

現代史 現場 ①

1909년 10월26일 하르빈의 安重根

29세 蘇망명 獨立義軍가담

가볼수없는 「現場」… 北韓·中共·소련땅에 散在

義士 安重根—

그는 우리의 현대사의 첫머리를 가장 찬연하게 장식한 민족의 영웅으로 숭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역사에는 그의 장렬하고도 의로운 자취가 선명히 남아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추모할 현장은 이땅에 있지않다.

현대사의 현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현장 없는」 사건을 첫번째로 삼은 것은 오는26일이 의거73주년 기념일이라는 時宜性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安의사의 의거가 역사적 의미는 물론 민족선발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첫번째로 강조되어야한다는 인식에서이다.

安의사의 「현장」들은 북한땅과 소련·중공땅에 산재돼 있다.

安의사가 태어난곳은 황해도 海州府, 7세때 이주해 청소년기를 보낸곳은 황해도 新川郡斗羅面淸溪洞이다. 27세때 가산을 정리해 옮겨가 敦義·三興 두 학교를 세우고 육영사업에 몰두한곳은 평남 鎭南浦이며 29세때 망명한땅은 소련땅 블라디보스토크.

獨立義軍에 몸담고 豆滿江을 넘나들며 독립전쟁의 무대로 활동한 곳은 함북 會寧 慶興일대이며, 의거를 일으키고 장렬한 생을 마감한 곳은 중공땅 하르빈이다.

그곳들이 모두 갈수없는땅에 있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그를 추모할수는 없다. 해방이후 뜻있는이들이 힘을 모아 곳곳에 기념물들을 만들어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서울南山에 선 安重根의사기념관, 全南長興郡에 있는 사당 萬壽祠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밖에 陸士에 세운 忠義碑, 鎭海慶和동 공원에 있는 숭모비, 光州공원안의 崇慕碑, 光州상무대에 있는 동상들이 손꼽을만한 안의사 기념물들이다.

安의사의 孤魂은 50년가까이 방황해왔다. 의거 다음해인 1910년에는 나라를 잃어 일제에 의해 36년동안 「大逆罪人」으로 몰려왔으며, 광복후에도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50년대말까지 영혼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다. 유족들과 일부 유지들의 추모만을 받아왔을 뿐이

때까지 동상하나 사당 한곳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安의사의 큰 뜻을 기리고 遺志를 받들기위한 움직임은 56년 4월 태동했다. 사회각계의 유지들이 우선 동상이라도 세워 후세들에게 길이 의사를 추모하는 표상으로 삼자는 뜻에서 安重根의사 기념사업회를 결성한 것이다.

학생·군인·일반시민의 모금과 유지들의 출연으로 모인 돈으로 南山중턱 崇義女高앞에 동상을건립한것이 59년5월23일이었으니 하르빈의거일로부터 꼭 50년만의 일이었다.

그뒤 기념사업협회는 해체되고 63년 安의사숭모회가결성되어 동상을 현재의 기념관자리로 옮겼다.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의사의 略傳을새긴 비석을 새로세웠으나 숭모회 인사들은 이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본격적인 추모사업을계획하기 시작했다.

기념관

李殷相·尹致暎·金庠基·安椿生·金弘壹·柳瀅·安浩相·李活·金良善·李文郁등 각계인사들이 중심이된 숭모회는 동상이선자리에 터를닦아 기념관을짓고 유품·유묵·관계사진들을 수집, 상설전시관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대통령과 사회단체, 정·재계 및 문화계인사들의 기부금과 국민성금으로 청기와에 철근콘크리트조의 한옥풍 기념관을 낙성한것이 의거 62주년기념일인 71년 10월25일이었다.

건평1백79평밖에 안되는 작은 건물이었으나 처음 지은 기념관은 겨레의 기쁨이고 자랑이기도 했다.

기념관과 함께 새로만든 동상을 앞뜰에 세우고 기왕의 동상은 光州공원으로 이안했다. 개관당시 87평넓이의 전시실에는 安의사의 유묵25점·관계사진35점·관계문헌15점등이 전시됐으나 그후10여년동안 꾸준한 유물수집 노력으로 지금은 유묵37점, 사진54점을포함, 소장품은2백60여점으로 늘어났다.

전시실이 비좁아 90여점은 따로보관해야할 형편에 이른 것이다. 유족들과 개인소장자들이 귀중한것들을 다투어 내놓았고, 東京韓國研究院의 崔書勉원장이 일본에서 발굴한유묵등을 꾸준히보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安의사가 몸에 지녔던 손 때묻은 기념품은 단1점도 없다. 소장품가운데 가장 값진것으로 평가되는편지도복사품이다.

이 편지는 안의사가 의거 이틀전인 24일 블라디보스토크의 동포신문 大東共報 편집장 李剛에게 보낸것으로 大事를 결행할 결심을통보한 내용이 한문으로기재돼있다.

4점의 서간문중 유일한원본은 거사2년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鎭南浦 敎義學校 洪錫九 신부(독일인·빌헬름)에게보낸 엽서1장 뿐이다.

37점의 유묵가운데 진본은 단9점 뿐이고 나머지 28점은 사본이다. 安의사는 거사후 이듬해 3월26일까지 만 5개월동안 旅順형무소 에서 2백여점의 휘호를 쓴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자서전과 논문 東洋平和論(서론)을 썼으나 이가운데 진본 휘호9점만이 우리손에돌어왔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 흩어져 있다.

安의사가 5개월동안 그토록 많은 유묵을 남긴것은 당시 安의사재판에 관여 했던 판·검사와 변호인들은 물론 형무소장·간수·통역관리들까지도 安의사의숭고한 애국심과, 고매한 인격과 덕망, 그리고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에 깊은감명을받아 앞다투어 지필묵(紙筆墨)을 넣어 휘호를 청했기때문이다.

당시 旅順형무소의 구리하라(栗原)소장의 딸이 아버지의 뜻에따라 安의사의 사당을 짓고 매일 아침 참배한다는 사실과, 간수 지바(千葉十七)의 유족이 安의사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주는 얘기이다.

의사의 기념관에는 참배객의 발길이 끊일 새가 없다. 지난71년 개관이래 현재까지의 입장객은 연 4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참배객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눈길을 끌고있다. 외국인 참배객은 대개 중국과 일본인들.

기자가 기념관에 취재갔던 21일에도 한무리의 중국인들이 의사의 동상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고, 한때는 전시관을 구경하고 있었다. 50대의 한 중국인에게 말을 걸었더니 「우리나라에서도安重根선생을 잘안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근년에는 일본인들도 늘어간다. 지난해 19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왔던 公明黨의 도다께이리(竹入) 위원장은 도착즉시 기념관을 방문했으며 지난 8월26일에는 新自由구락부의 다가와(田川誠一)당수등 11명과 대학교수단6명이 단체로 참배했었다.

李文郁관장에 의하면 다가와당수는 기념관을찾아와『安의사의 의거는 당연한일이었다. 정의를 펴는데는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느껴, 그정신을 배우려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安의사의 위패를 모신 萬壽祠。사당을 짓는데 앞장섰던 安洪天옹(88)과 安邦植씨(60)가 영정과 유묵·사진액자를 꺼내 손질하고 있다。사당에 걸린 편액「海東明月」은 故李承晩대통령의 친필이다。【長興에서 鄭在斗기자찍음】

義擧 50년만에야 추모銅像

參拜客끊긴 祠堂… 퇴락한채 放置

사당

安의사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 萬壽祠는 전남 長興郡長東面 萬年里 龍頭山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이 지방 유림(儒林)에서 安의사의 26대조인 高麗代의 유학자 安珦(裕)선생의 사당을 지은것이 1948년, 그 옆에 安의사의 사당을 세운 것은 1957년이라 했다.

『晦軒선생(安珦)의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올리다보니 26대손 安重根의사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전국에 한군데도 없어. 그래서 의사의 사당을 따로 짓고 영정과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이 사당을 짓는데 가산의 일부를 털어넣고 널리 돈을 거두는데 앞장섰었다는 安洪天옹(88·長東面좌閑里)의 설명이다.

萬壽祠를 방문한날은 아직 보수공사가 끝나지않아 어수선하기도 했으나, 건물이 너무 퇴락한데다 전혀 손질을 받지못한 사당안팎의 경관이 거칠어 가슴이 무거웠다.

더구나 安의사의 사당이란것이 넓이 1평 남짓한 초라한 것이어서 실망은 더욱 컸다.

사당을 유지·관리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않고있음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참배객도 거의없다. 지금으로 萬壽祠의 財源은 제사기금으로 있는 논6천1백51평뿐이다. 건립당시 安옹을 중심으로한 이지방과 全南각지의 유림에서낸 성금의 일부로 마련한 이재산은 해마다 한차례씩올리는 제사비용과 관리인 金炳洙씨(50)일가의 생계비에도 빠듯한 형편. 건물을손보고 조경할 여유가없어그대로 방치되어온 것이다.

다행히 금년에는 郡과 道에서 6백만원의 수리비가나와 낡은 기와를 갈았고, 사당앞 뜨락을 시멘트로 바르고 부서진 문짝들을 수리하고 있다.

사당에서는 安珦선생의 忌日이자 安의사의거일인 음력9월12일에 두사람의 제사를 함께 올리고 있다.

제사때면 이지방은 물론 전국각지의 유림에서 2、3백명이 참집, 성대한 祭를 올리고 있으나, 금년에는 보수공사가 채 끝나지않아 오는28일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것이다」

安옹은 이토록 볼품없는 사당이 부끄러워 지난 78년 安의사의 사당을 크게 새로 짓고 안팎의 경관을 일신하고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당국에 소요예산 1억8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있다.

그러나 당국은 『사당의 위치가 너무 오지이고 서울에 기념관이 따로 있으니 증축 정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묵살해버렸다고 한다.

소장품을 제대로 전시할수 없는 좁은 기념관과, 퇴락하고 초라한 사당, 그리고 몇개의 탑과 비석으로 우리는 安의사추모의 근거를 삼고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광복37년동안 그의 유해를 환국시키지못한 불민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진작 한번쯤 성찰했어야 할 일이다.

【長興=文昌宰 기자】

◇LA올림픽 水泳服

세명의 남녀모델이 프랑스南部니스해변가에서 열린 새로운 수영복 전시회에서 올림픽위원회에 의해 오는 84년 7월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수영복으로 채택된 수영복을 입어 보이고있다. 【파리24日 AP聯=聯合】

日 自民 총재單一후보 失敗의 背景

霧散된 徹夜 3者협상

總裁·首相분리案거론 한때合意

執權유력한 나까소네 按配반대

◇나까가와

◇아 베

◇고오모또

◇나까소네

일본自民黨은 각파협상에 의한 단일후보 옹립에 실패, 결국 23일부터 새총재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전에 돌입했다.

스즈끼수상, 후꾸다前수상, 니까이도간사장 등은 22일밤부터 23일새벽까지 철야협상을 강행,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때 총리(수상)—총재 분리안으로 타협, 단일후보옹립에 성공할듯이 보였으나 나까소네후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고말았다.

따라서 당원1백4만명이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예비선거는 오는11월23일까지 우편투표로 자민당본부에 우송되며 11월24일까지 개표를 완료, 1위에서 3위까지를 후보로 놓고 25일에 당소속 衆·參議院의원들이 본선거를 실시, 새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

예비선거에서는 40만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고오모또후보가 가장 우세하며 주류가 미는 나까소네후보는 자파소속당원 10만명과 다나까, 스즈끼 양파의 협력을 얻게되면 40만당원의지지를 얻어 고오모또후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나까소네후보가 예비선거에서 은메달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의한 본선거에서는 주류가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기때문에 스즈끼를 뒤이은 나까소네정권이 탄생될 것이 틀림없다.

22일 스즈끼(71), 후꾸다(75), 니까이도(70)등 세당원로는 70대의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녁5시부터 23일 새벽5시까지 만12시간의 마라톤협상을 강행, 주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의협상은 주로 4후보를 모두 당 행정부의 요직에 참여시키기위한 순열조합으로 시작됐다.

주류는 나까소네「수상」, 고오모또「부수상」, 아베「간사장」, 나까가와「政調會長」안을 들고 나왔으나 후꾸다씨가 이를반대, 진전을 보지못했다.

후꾸다씨는 나까소네수상 총재로는 당의 개혁이 어렵고 다나까파에 기울어질염려가 있다고반대했다.

그사이 심심치않게 주류쪽에서는 나까소네를, 비주류쪽에서는 고오모또를 각각 총재·수상으로밀고당겼으나 타협점을 보지못하자 밤10시께 후꾸다씨가 총재수상분리론을 들고나왔다.

이에대해 스즈끼수상과 니까이도간사장은 정당정치상 있을수없다고 일축, 거론도 되지못한채 총재수상분리론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하여 자정이 지나자 스즈끼수상과 니까이도간사장으로부터 사라졌던 후꾸다씨의 총재·수상분리론이 다시 거론되어 밤을 새워서라도 이안으로조정해보자고 제의했다.

문제는 누가 수상을 하느냐였는데 주류쪽은 나까소네, 비주류쪽은 고오모또를 각각 주장하여 결론을 얻지못했다.

새벽2시가 지나자 타협점을 찾기위해 스즈끼—후꾸다 양자회담으로 들어가 「나까소네수상—후꾸다총재案」을 스즈끼수상이 제시, 설득하는 바람에 후꾸다씨가 이를 수락, 새벽3시 비주류의 후보인 고오모또, 아베, 나까가와등을 당총재실로 불러 타협안을 통보했다.

비주류의 3후보는 후꾸다의 총재추대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불만스러우면서도『이를 수락했다』는 것이 아베후보의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수상으로 추대된 나까소네후보가 새벽4시 당사로 불려와 타협안을 통보받고『정당정치제도상 총재와 총리(수상)를 분리하는것은 있을수없다』고 강력히 반대하는바람에 철야협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아베후보와 나까가와후보는 23일오후2시 4후보 합동기자회견을통해『스즈끼수상과 니까이도간사장이 제시한「나까소네수상—후꾸다총재」타협안은 비주류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음모라는 설이있다』고 전제하고『다나까파인 나까이도간사장과 스즈끼수상이 타협안으로 제시, 비주류를 설득하면서 주류인 나까소네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비난하기도했다.

앞으로 주류와 비주류는 예비선거전에서 득표를 위해 혈전을 벌이게 됐으며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발전할 경우 누가 총재·수상으로 선출되더라도 서로만신창이가 되어 短命內閣으로 그칠 공산이 없지도않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부흥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데니스·굳델(Dr. Dennis L. Goodell)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부흥회를 준비하였읍니다.

굳델목사님의 증지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북미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으며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읍니다.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과 병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마음 준비하시고 꼭 시간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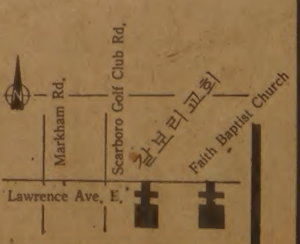
영어로 설교하시고 우리말로 통역해 드립니다. 영어를 잘 아는 젊은 학생들도 특히 초대합니다.

다 음

강사 : 데니스·굳델목사(Dr. Dennis L. Goodell)

일시 : 1982년10월31일(주일)~11월4일(목) 매일오후7시30분

장소 : 10월31일(주일)부터 11월3일(수)까지는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borough)
11월4일(목)은 Faith Baptist Church (3837 Lawrence Ave. E. Scarborough)



갈보리한인장로교회당회장 목사 안병한 올림

☎ : 755—7979, 431—3635, 431—7034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새우젓觀光」붐

단체로 仁川·부산등 주요港口에

"값싸고 구경도 하고" 김장철 主婦들 알뜰行樂

요즈음 仁川·釜山등 주요항구에 이색적인「새우젓관광」이 붐이다. 김장철을 맞아 가까운명소의단체관광을즐기고돌아가는길에 항구에 들러「새우젓」을드럼으로사서 나누는 알뜰행락관이다. 이러한 알뜰행락객은 김장철을 앞두고 부쩍늘어 仁川만도 하루에10여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든다. 「새우젓관광」을하는 알뜰행락객은 대부분 사회단체의 부녀회원이나 같은 마을주부, 계꾼이나 여고동창들. 보통 40여명이 관광버스대절료가 비싼 주말을 피해 1인당 3천원씩 회비를내고 나들이한다.

회비는 버스대절료 8만원과 일반경비로 쓰고 새우젓을 살때는 별도로 1만원정도를 다시 걷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도시락을지참한것이 특색이라면 특색. 「뽕도 따고 임도 보는」이 새우젓관광코스의 종점은 仁川의경우 연안부두종합어시장과 蘇萊부두. 종합어시장은 새우젓으로, 蘇萊부두는 생새우로 유명하다.

東豆川에 사는 주부 金貞任씨(47)는 동네주부 42명과 관광버스를타고 龍仁자연농원구경을 마친후 仁川에 들러 새우젓을 샀다며 『값도 싸고 질도 믿을수 있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식생활이 변해도 김치를 안먹을 수 없고, 김장양념중에서도 질좋은 새우젓 준비를 빠뜨릴수 없다. 그래서 仁川종합어시장 새우젓은 더욱 인기다. 이들 주부관광단은 단체로 마음에 드는 새우젓을 고르고 드럼통채로 산다. 요새 시세로 제일맛좋은육젓은 한드럼에 45만원. 3ℓ들이 깡통으로 60깡통이 나오기 때문에 50명내외의 주부관광단이 나누어 갖기도 적합하다. 상인들은 주부관광단이 몰려오면 신이 나고 요구대로 나누어 간편하게 포장해 준다. 이렇게 단체구입 하는경우 상인들은 신용을 생각해서 대개 질 좋은 것을내 놓는다. 소매로 사면 값도 20%정도 비싸지만 주부들이 국물을 더 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새우젓에 물을 타게 마련. 이런 새우젓은 얼마 못가 색깔이 변하고 이미 맛도 변해 버린다.

仁川종합시장안에는 모두 65개의 젓갈류점포가있는데 상오에는 소매상들로 법석을 이루고 하오에는 관광주부들로 왁짜지껄한다.

이 어시장 젓갈부1호상회주인 洪恒杓씨(31)는 『8월말부터 하루 평균2백명의 새우젓관광주부들이 온다』며 10월들어 추젓잡이가 호황을 보며 추석전보다 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洪씨에 의하면 이 새우젓관광은 작년부터 생겼다.

상인들은 仁川근해에서 잡은 새우가 젓갈용으로알맞지 않아 木浦·麗水등지에서 질좋은 육젓을 들여다 놓고있다. 여시장에는 이런 새우젓이 4배여드럼이나 쌓여있다.

새우젓은 6월에 나오는 새우로 담근육젓을 최고로 친다. 7、8、9월에잡은 새우로 담근 자젓은 맛이 떨어져 드럼에 13만원이채 안되며 요즘잡히는 새우로 담근 추젓도 값이싸다. 또 보리새우로 만든 뎃뜨기젓은 18~20만원, 황석어젓은 7~10만원, 곤쟁이젓은 3~4만원인데 모두작년보다 싸졌다.

이들 주부관광단중에는 한두명이 새우젓에 조예깊은주부가 꼭끼게 마련.

생새우를 원하거나 자신이 직접 새우젓을담고 싶은사람은 蘇萊포구를 찾는다. 蘇萊의 생새우시장엔 요즘 매일 5、6대의 관광버스가 물때를 맞춰 몰린다. 2백50여척의 새우잡이 어선들이 德積島근해에서조업, 이곳으로 생새우를 실어온다. 들물이시작되 2시간후면 어선이 부둣가에 빽빽이 들어서고 생새우고객이6천여명이나 몰려 波市를 이룬다.

말로 담아파는데 1말에 1~5천원에 거래되고 2시간이면 파장이다. 팔다 남은 새우는 소금에절여진다. 생새우를산 고객들도 대부분 그자리서 소금에절여 가져간다.

마을주부 40명과함께 蘇萊포구에「새우젓관광」을 온 金明花씨(49·경기坡州郡廣灘面龍尾4里)는 『작년에는 3만원주고 새우젓 2깡통을 사서썼으나 이곳에선 9천원들으니 생새우를 3말이나 주더라』며내년에 다시 이곳을 찾겠다고 즐거워했다.

이처럼 새우젓관광은 완제품 새우젓을 사든 생새우를사든 서울이나 내륙지방 주부들에겐 목선뱃고동이 울리고 갈매기가 무역선사이를 곡예하는 시원한 바닷풍경을 즐기고 꼬릿꼬릿한 갯내음에 젖을수 있다는 점에서 김장철까지 인기가 계속될것 같다.

【仁川=崔成基기자】

◇仁川종합어시장에서 새우젓 관광객과 상인들이 새우젓을 사람수에 따라 나누고 있다。

아파트 곳곳서 샌다

管理수난시대…低質파이프施工 3~6년만에 부식

엄청난 補修費에 울상

◇분양된지 얼마되지않은 고급아파트들도 불량배관을 쓰는등 날림시설을 한것이 드러나 벌써 낡은 건물처럼 수리가 한창이다。【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아파트 관리의 수난시대」가 열렸다. 아파트의 생명이랄수있는 온수·냉수의 배관이 삭기시작,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것. 최근에지은 유명아파트는 대개 동관(銅管)이나 KS강철관(鋼鐵管)을 쓰고있어 문제가없지만 일부고급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아파트에는 질이나쁜 배관을 사용했었기때문에 배관이 삭으면서 물이새 보수작업을 하는곳이 늘어나고있다.

누수가되면 아래층이 피해를봐 개수공사비를 모두물어주어야하고 배관교체를 하려면 엄청난 가욋돈이 드는데다가 온돌을 모두 뜯어내는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서민아파트나 고급맨션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민아파트의경우, 분양2、3년만에 물이새기시작한 곳이많고 고급에도 5、6년만에 누수현상이 생긴곳도 있다. 연립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발효된 79년12월이전에지은 모든 아파트가 불량배관때문에 조만간 「누수수난」을 겪게 된다고지적하고 비용이 많이들더라도 수명이긴 KS강철관이나 반영구라는 동관으로 교체하는 외에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을방법이 없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 요즈음에와 유명아파트업자들은 배관공사를 제대로하나 아직도 불량배관을하는 업자가 있다고주장, 철저한 감독과 확인을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KS자재를 사용, 정밀시공을 하면 강철관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보장되고 동관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건물의 수명과 맞먹는 반영구적이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건축비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 날림으로 시공한다는 바람에 예상수명의 반도 못 넘기고 5~10년 사이에 배관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74년에 준공된 汝矣島S아파트의 경우 5년째인 79년부터 난방과 온수보일러의배관이 삭아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다 7년만인 지난해 온수보일러 배관전체를 교체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매월 세대당 3천3백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내고도 별도로 8만원씩을 부담해야했다. S아파트와 같은해에 준공된 E아파트의 경우는 이보다 1년 앞당겨 보일러배관을 교체했는데 역시 40평기준으로 매월 4천원의 특별충당금외에 별도의 시설교체비를 부담해야 했다.

汝矣島M아파트도 76년에 준공했으나 6년만인 지난여름 온수보일러의 배관을 완전교체했다.

盤浦洞의 B아파트의 경우도 7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30여개동의 급탕·온수보일러 등 각종 배관시설을 지난해 교체했고 74년에준공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40여개동씩 배관교체공사를 할 방침인데 교체하지 않은 입주자들에 의하면 열효율이 5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

중소건축업자가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는 이보다 더 수명이 짧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체공사를 서두르고있다. 서울冠岳區新林洞N아파트는 79년에 준공됐으나 2년째부터 보일러시설의 하자가 속출,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 3백48원외에 시설감가상각비란 명목으로 세대당 매월1천원을 내고있는데 관리사무소측은 현재의 보일러시설이 5년을 넘기기 어렵게 됐다며 시설교체비 마련에 고심하고있다.

기름보일러시설이 된 서울江西區新月洞A연립주택의경우 준공된지 2년만인 지난겨울에 배관의 누수현상이나타나 일부입주자가 자비를들여 보일러시설을 교체했고올겨울을 앞두고 배관교체를서두르는 세대가 늘고있다.

연탄보일러가 시설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기름보일러시설보다 더 수명이 짧아대개 3년을 못넘기고있다.

78년9월에 1차로 완공된 서울東大門區長安洞 J아파트의 경우 2천여세대전부가 연탄보일러를 교체해야 했고 79년도에 완공된 2차아파트 2천3백60세대중 상당수가 보일러교체를 시작, 1주일에 한트럭분의 고철이 실려나가고 있다.

연탄보일러의수명은강관배관의경우 3~5년,주물배관의경우10년인데 시설비는 20평의 경우 각각 20만원,30만원으로 10만원차이가 난다.

중소주택업자들은 10만원을 아끼기위해 수명이 짧은 강관배관을 시공,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는셈이다. 특히 주민들은 연탄보일러의 배관이 조금만삭아도 가스누출등 사고위험이 많아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한다.

배관의 부실공사는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발효된 79년12월이전에지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많은데 당시 배관시설과 자재에 대한 무규정이없어 값싼 자재로 날림공사를 했기때문. 가정난방·온수보일러, 상·하수도의 배관등 각종 배관시설에는 KS자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발효이후 유명업체선 KS자재를 사용하거나 반영구적인 동관을 사용하는 주택의수명을고려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업자들은 여전히 날림공사를 하고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현재 서울의 허가된 시공업체는 2천5백여개소이나 무허가시공업체는 3배나된다는것. 물론 현장승인이 안된 자재를 생산·판매하거나 이를 사용, 시공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무허가시공업자의 날림시공에 대해 거의 손을 못쓰는 형편이라는것.

에너지관리공단측은 배관시설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한다며 업자들이 건축비절감에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시공해줄것과 입주자들도 배관의 시공이 제대로 되었나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81년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수는 47만호, 연립주택 수는 18만3천호이며 서울에는 아파트 21만9천호, 연립주택은 8만3천호가 몰려있다.

【文畯俊기자】

정부糧穀 3백가마 빼돌려

官給사료에 먼지섞어 納品

長城 도정공장主人

【光州】光州지검수사과는23일 관급 사료에 먼지를 섞어 납품하고 8백여만원어치의 정부양곡을 빼먹은 전남長城郡長城邑鈴泉里 정부양곡도정공장 공장장 金鍾燮씨(52)를 업무상횡령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장주인 崔用文씨(72·長城郡長城邑鈴泉里)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8월16일 가공용 양곡1백8가마를 빼먹은것을 비롯 9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3백가마(수매가격8백만6천여원)의 정부양곡을 빼내 최씨의 개인창고와 친척집등에 숨겨놓았다는것이다.

오늘 초겨울 날씨

어제보다 2~3度 더 낮아

23일 중부지방기온이 뚝떨어져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를 보였다. 23일 아침 전국의 기온은▲서울의 4·4도를비롯 ▲仁川4·2도▲水原4·6도▲春川6·3도▲大關嶺2·2도등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2~3도가 낮은기온을 보였으나 嶺湖南지방은 10도안팎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전방고지는 陳富嶺이 영하4도까지 내려간것을 비롯 香爐峰·大成山등이 영하1~3도를 기록했다. 한편 降雪인 24일은 전국이 맑은가운데 찬기류가 남부지방까지 확산, 서울4도、春川·淸州2도、大田3도、大邱4도、全州5도등 전국이 23일보다 2~3도 더 낮아져 쌀쌀하겠고 이같은 기온은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중앙기상대는 예보했다. 중앙기상대는 이같은 기온분포는 몽고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찬기류가 우리나라중부에 유입되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元豊모방 勞使분규관련

勞組간부 13명手配

서울南部경찰서는 23일 元豊모방의 노사분규와 관련, 이회사 노조지부장 鄭善順양(24·서울冠岳區新林2洞402의148)등 노조간부 1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3일 상오6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銅雀區新大方洞565 元豊모방공장 정문앞에서 동료근로자 2백50여명을 선동,「노조탄압 중단」「해고노조원복직」등의 구호를외치고「元豊모방사태의진상」이라는 불법유인물을 뿌린혐의이다.

鄭載巴군 抗訴審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행정과3년)에대한 항소심 제3회공판이 23일상오10시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李舜九부장판사)심리로열려 사실심리를 모두마쳤다.

결심공판은 오는30일상오10시에열려 구형과 변호인변론·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게된다.

"獨立誠金참여 권유할터"

재일동포 李慶晚씨 본사에千만원

母國방문단도 誠金

23일 독립기념관 건립성금 1천10만원을 한국일보에 기탁한 재일동포실업가 李慶晚씨(66·민단고문·日本東京 不二興行주식회사 대표)는 지난40년 일본으로 징용을 간후 온갖 고생끝에 오늘날 부동산임대와 영화관 운영을 주축으로 하는 不二興行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간의 고생은『말로 표현할수 없다』는 李씨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고향인 慶南山淸郡新安面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엔 1억2천만원을 들여 新安면사무소 건물을 마련해 주었으며 山淸郡 단성고등학교를 설립할때는 대지를 기증했고 금년에는 지난 馬山체전에 기금으로 1천5백만원을 기증하기도 했다.

李씨는 또『독립기념관성금 모금이 일본의 동포사회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것 같다』며『이번에 돌아가면 더많은 재일동포 실업인들이 이대열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일동포 모국사찰(寺刹) 방문단 일행 1백82명이 6일간의 순례를 끝내고 한국일보 부산지사를방문 독립기념관 건립성금 3백23만3백원을기탁했다.【釜山】

시내버스승차권 위조단적발

釜山 학교대상 3만장 팔아

【釜山】부산東萊경찰서는23일 시내버스승차권 위조단을 적발, 판매책 周相鶴씨(41·影島區太平洞태평맨션203호)를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범 이정배씨(36·西區西大新洞3街163)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8월초순께부터 비밀인쇄시설을 차려놓고 학생용시내버스 승차권3만여장을 만든후 액면가85원보다 5원씩싸게 팔아왔다는것.

이들이만든 가짜승차권은 정교하게 인쇄되어 진짜와식별키 어려울정도이지만 액면가표시인 85원이란 글씨가 진짜보다 약간크고 푸른색바탕의색깔이 조금진했다.【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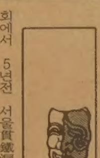
光州교도소장 轉補

법무부는 지난20일자로 光州교도소장 (직무대리)에 朱政杜 淸州교도소장을 전보발령했다. 전임 崔根檀소장은 제2감호소장 (직무대리)으로 전보됐다.

匠人의 맛

「김충복 과자점」 주인 金忠福씨

굶주림이 恨되어 "빵의大家"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석자를남긴다는말이있지만「빵쟁이」인 金忠福씨(53·사진·김충복과자점주인)는「빵」에다 성명3자를 걸고있다. 자신이만드는 빵에 온갖신명을 다바치는「匠人」이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무게와 명예를「빵」에건 진짜베기「빵쟁이」이다.

최고로 맛있는빵을만들어 가장비싼값을받고있는데 그의 성명3자를 간판에내건「김충복과자점」은 서울麻浦區西橋洞 레디스타운등 10여개소에서 성업중이다.

의사·변호사·디자이너등만이 자신의이름을 간판에내세우고있는 사회에서 5년전 서울貫鐵洞골목에처음으나난「김충복과자점」간판은 말하자면「빵쟁이」의 전문점 선언이었고 우리사회에선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빵에 투신한 동기는 눈물겹다. 한창 먹성이 좋을 19세때 全南順天의 한양과자점 배를안고 전전하면서『과자부스러기라도 실컷먹었으면 원이없겠다』며 품은 恨이 오늘날 그를 성명3자를 내건 빵世界의 大家로 만들었다.

그후 30년간 그의 생애는 오로지 빵을 만들기위한 밀가루 덩어리 속에서 반죽되어온 외길이었다. 그는 56년부터 10년간「태극당」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이빵집의 전성시대를 이루어주었고 풍년제과, 뉴욕제과등 유명제과점의 빵맛도 모두 그의 손끝에서 반죽되어나왔다. 그는 빵맛을 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東京고등제과학교에 유학도했고 미국과 빵의 본바닥인 유럽각지를 돌아다녔다.

밀가루반죽 3.75kg에 달걀32개를 넣어야한다는것이 자신의「비밀」인데 달걀5~6개를 넣고 물과 마가린을 넣어 같은색깔을 흉내낼수는 있지만 맛을 흉내낼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빵도 즉석에서 구워 따끈할때 먹어야한다. 이때문에 그의 10여개 빵가게는 빵을 받아다 파는 일반 빵대리점과 달리 가게마다 공장을 가지고 있다. 1천명의「빵쟁이」제자를 길러낸 그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쟁이사회」의 엄격함이 이 빵쟁이大家에게는 남아있음을 엿볼수있다.

『이름을 내건 빵의 맛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匠人의 맛」을 책임진다는 표현으로 들렸다.

【姜秦泰기자】

학생모집
<장학금제도실시>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CREST MALL(영×리치몬드힐)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본 뮤직·칼레지는 최신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심껏 지도하고자 하는 음악전문학교입니다.

교수진 카나다 명문음대를 수료한 B.A.,A.R.C.T 학위소지자로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었읍니다.

과 목 피아노 / 전자올겐 / 바이올린 / 기타 / 첼로 / 홀룻 / 성악

편 성 ① 각부 초, 중, 고급반
② 개인지도반, 그룹지도반
③ 전과목 이론및 실기

MOZART COLLEGE OF MUSIC
모짜르트 음악학원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김장철 새운대매출

김장철이 다아 왔읍니다.
저희 식품점에서는 모든 김장준비에 모든 종류를 완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기간 : 10월20일(수)~11월20일(목), 1 달간.
품목 : 고추가루·새우젓·배추·무우·굵은파(김장용)
·갓·마늘·생강·김장통

김장용고추가루대량입하.
(11월1일부터 판매실시)
고국상품대량입하!!
김장김치주문환영
－양념된 김장김치 한통에 25불
－양념된 총각무 한통에 40불

※김장철에 한해서 특별히 배달 해 드립니다.

274-5401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미시사가 한글학교 옆－

黃俊錫 세계挑戰길 열렸다

레너드 隱退하면 12월께 美커리와 WBA웰터級 결정전

◇黃 俊 錫

美프러모터 알려와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웰터급챔피언 黃俊錫(21)도 오는12월 세계타이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黃은 슈거레이·레너드가 다음달 은퇴를 선언하고 현역에서 물러날 경우 WBA웰터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현재 랭킹2위인 도널드·커리(미국)와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된다.

WBA및 WBC 웰터급 통합챔피언인 레너드가 물러날 경우 자연히 2개의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게되는데 양 기구의 1·2위는 공교롭게도 밀턴·맥그로이(미국)와 도널드·커리(미국). WBC 챔피언 결정전은 맥그로이와 로저·스태포드(미국)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됐고, WBA서는 2위인 도널드·커리와 3위의 黃俊錫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美國의 프러모터 보브·애럼씨가최근 국내에 전문으로 알려왔다.

에럼씨는 이전문에서 黃이 OPBF 웰터급타이틀 4차방어전서 이기면 오는 12월이나 내년1월중에 라스베이가스에서타이틀결정전을 갖게해주겠다고 밝히고있다.

黃과 결정전을 가질 도널드·커리는 흑인선수로나이는 22세. 8살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커리는 3백96승4패의 풍부한 아마추어 경력을 갖고있으며 80년12월26일라스베이가스에서 프로데뷔전을 가졌다. 이경기서 마티·테니오를1회 KO로 물리친뒤 계속 연승가도를 달려 10연승9KO승을 기록하고있다.

키177㎝의 커리는 코브라라는 별명을 갖고있는강타자.

黃俊錫은 79년12월 웰터급 신인왕에 올라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4월18일 黃忠載를 KO로 물리쳐 동양왕좌에 올랐다.

받아치기가 뛰어나고 좌우훅은 폭발적이다. 라이트스트레이트에 이은 왼손보디공격은 수준급.

172㎝로 웰터급에서는 키가작다. 지금까지18승(9KO)무패를기록하고 있다. 7연속KO승의 호조를보이고있다.

프로복싱

「第2의 레너드」…美 맨시니 人氣

機關銃 펀치·독특한 微笑로 팬들 魅了

◇레이·맨시니

金得九와 2防戰

◆…슈거레이·레너드가 은퇴하면 그가 누리던 최고의 인기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WBA 라이트급 챔피언 레이·맨시니(21·미국)가 될것이란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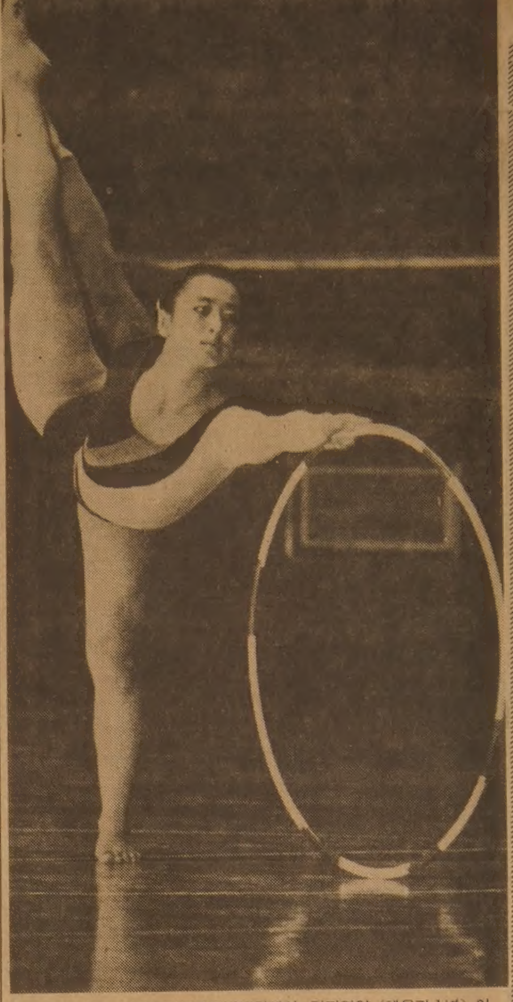
맨시니는 팬들을 열광시키는 좌우 소나기 펀치와 달콤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다.

맨시니의 인기는 날로높아 상업 광고에도 출연했으며 두군데의 영화사에서 그의 일생을 소재로한 영화를 만들려하고 있다. 한 영화사는 형사 콜롬보역으로 유명한 피터·포크, 존·카사베트등으로 출연진을 짜고 있으며 실베스터·스탈론을 헤비급복서 로키·발보아로 분장시켜 재미를 본영화사에서도맨시니를그린영화를만들려하고있다.

지난40년대 라이트급프로복서 레니·맨시니의 아들로 61년3월4일 오하이오州 영스타운서 태어난 맨시니는 43승(23KO)7패의 아마추어 전적을 갖고있다.

79년 골든·글러브대회서 머피·그리파스에게 발목, 프로로 전향한 맨시니는 81년10월 WBC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에게 도전했다가 14회KO로 패한바있다. 그러나 82년5월8일 아트·프리아스에게 1회종반22초동안 34개의 펀치를 퍼부어 KO승, WBA라이트급챔피언에 올랐다.

라이트급 세계챔피언에 도전하려다가 2차대전 참전으로 뜻을 이루지못했던 아버지의꿈을 아들이 실현시킨 것이다. 주먹을 던질때 공기를 가르는 「붕붕」하는 소리가 난다고해서 붐붐·맨시니로 불리고 있다. 지난7월 전챔피언 에르네스토·에스파냐와의 1차방어전서 6회KO승을 거두었으며 오는11월13일에는 한국의 金得九와 2차방어전을 갖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金仁奎기자】


◇후프체조。世宗大리듬체조발표회에서 김지영양 (체육과1년) 이 후프를 이용하여 율동미를 펼쳐고있다。

◇社運건 포드新型車 세계굴지의 자동차메이커인 美포드社는 올가을에 30억달러 (약2조4천억원) 를 투자, 社運을 건 신형차개발에 착수했다。사진은 포드社의 콜드웰會長이 신형차 머스탱·컨버티블을 소개하고있는 모습。【뉴스위크誌에서】

축구代表戰力 불안하다

招請평가戰 브라질에 2-1 패배

14차례의 熱火공격 펴고도 페널티킥얻어 1골만 빼내

印度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 축구팀은 23일하오 부산 九德경기장서 벌어진 브라질 프로팀 에스포르테팀과의 친선경기 1차전서 2—1로 패했다. 한국은 브라질 리오·그란데주 1부리그 중위 팀인 에스포르테를 맞아 스피디한 공격을 펼쳤으나 공격 최후과정이 정밀하지 못하고 볼처리가 나빠 끝내 동점 골을 뽑내지 못했다.

한국은 25일 하오6시 서울운동장서 에스포르테와 2차전을 벌인다. 에스포르테는 이날 여독을 풀지못해 절묘한 개인기를 보이지 못했으나 전반36분 루이싱요가, 후반34분 아마메우가 1골씩 기록했다.

전후반 14차례나 열화의 공격을 펼친 대표팀은 후반24분 얻은 페널티킥을 崔景植이 성공시켜 1골을 만회했다.

한국의 스타팀멤버는 베스트일레븐, 부상으로 쉬었던 張外龍 丁海遠까지 나왔다.

한국은 전반전 7차례슛에서 6차례는 득점과 연결시킬수있는 결정적기회를 만들었다가 매듭을 짓지못했고 문전에서의 패스웍은 아직도 원활치 않았다.

전반13분 崔淳鎬가 골에리어에서 때린 볼은 수비다리에 맞고 빗나갔고 23분 李康助의 왼발강슛도 GK 제낭요가 쳐냈다.

계속 몰리던 에스포르테는 36분에 FB 파울로가 오른쪽을 치고 들어가 센터링을 날리자 문전 정면에있던 FW 루이싱요가 崔景植과 함께 뛰어오르며 헤딩슛, 선제골을 기록했다.

압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먼저실점한 대표팀은 38분에 崔淳鎬가 멋진 터닝슛을 시도했으나 GK다리에맞았으며 42분 趙廣來의 슛도 크로스바를 강하게 때렸으며 43분 李康助의 슛도 골포스트를 맞았다.

한국은 후반24분 페널티킥으로 1점을 만회했다.

브라질수비가 丁海遠을 걷어차자 李道河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 崔景植이 깨끗이 골인시켰다. 브라질은 34분에 1골을 보탰다.

한국 문전 정면30m지점에서 2—1패스를하며 파고들어가 후반교체FW 아마메우·산토스가 땅볼슛을 성공시켜 결승점을 올렸다. 한국으로서는 불운이겹친 한판이었다.

◇1차전

에스포르테 2 (1—0 1—1) 1 대한국표

올림픽에서 金메달 따면 아파트 無償분양

李체육 밝혀

李源京체육부장관은 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에 대비, 우수선수및 유공체육인에 대한 경제적생활안정과 사회적지위보장을 위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선수촌아파트를 특별우상분양하는 등 광범위한 보호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23일 국회올림픽특별위원회에출석,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메달리스트에 대한 뒷받침도보다강화하겠다고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앞으로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정부 또는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키로하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에 加點制를 적용하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순위고사 면제, 기업체 취업은 체육장관의 추천에 의해 고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에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따에따라 진학기회와 편입학기회를 보장하며 직업교육을 알선하고 체육진흥기금법상의 체육장학금액을 중학20만원에서 30만원, 고교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포상범위를 확대, 올림픽 金메달리스트에 한해서는 ▲공무원 군인 교사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인경우 1계급특진 ▲우수선수 수훈비건립 ▲공무원의 국비해외유학등을 추진하며 후생복지증진책으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특별 무상 분양하고 영구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 金장의 경우 현재의 24만원에서 40만원과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在博·李光殷콤비 수훈

올스타, 브레이브스에 1-0辛勝

美國 프로야구 아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 마이너리그 혼성팀 초청경기 5차전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려 6개구단을 망라한 한국선발팀이 3번 李光殷(MBC)의 4회말 결승타에 힘입어 브레이브스에 1—0으로 신승했다.

양팀 모두 콤비네이션 난조로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선발은 MBC의 두투수 柳種兼과 河基龍의 역투로 브레이브스의 강타선을 산발 4안타 무실점으로 완봉, 승리의 기틀을 다졌다.

한국선발의 승리는 MBC 스타들의 활약으로 결정되었다. 브레이브스 선발 브리좋라에게 3회까지 안타없이 눌리던 한국은 4회말 선두 1번 金在博(MBC 유격수)이 절묘한 기습번트 안타로 돌파구를 열었으며 1死후 브레이브스 포수의 견제구를 유격수가 떨어뜨리는틈에 재치있게 2루에서 살아 선제득점찬스를 만들었다. 3번 李光殷(MBC 3루수)은 때맞춰 우익수앞으로 빠지는 황금의 결승타를 날려 金在博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4번 OB의 홈런타자 金宇烈이 날린타구는 중앙펜스가까이서 플라이로 아깝게 잡혔고 5번 프로 첫시즌 홈런왕 金奉淵(해태)의 타구도 운나쁘게 2루수라이너로 잡혔다.

金在博과 李光殷은 이날4타수2안타로 가장좋은 타격을 보였다.

선발투수 좌완柳種兼은 5회동안 19타자를산발2안타·2포볼·2삼진으로, 계투한 우완河基龍은 4회동안 15타자를 2안타·2포볼로 봉쇄했다.

브레이브스는 7회까지 두투수의 역투에눌려 득점찬스를 만들지못하다가 8·9회의 종반역전기회마저 잇단병살타로 놓쳤다. 8회초 1死후 1번롱슨이 포볼, 2번코러가 좌전안타를날려 1死1·2루를 이루었으나 3번스트리트가 2루수앞 병살타를 때렸다.

9회초에는 4번 그라우트가 내야안타를때리고 마지막찬스를 만들었으나 5번랜디스가 2루앞병살타, 6번 샌포드가 포볼을 고르자 7번 보콘톤이 유격수앞땅볼로 맥없이 물러났다.

◇제5차전

브레이브스	000	000	000	0
한국선발	000	100	00×	1

세계射擊참가 여자팀結團式

오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제43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여자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이 22일하오 泰陵종합사격장에서 거행됐다. 한국대표단은 임원5명·선수15명으로 구성됐는데 26일 떠난다.

金俊行 대학부優勝

전국학생 柔道대회

제8회 전국 중·고·대학생 유도선수권 대회가 23일여의도 유도회관에서 열려 대학부서 金俊行(유도대)이 姜明圭(유도대)를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한편 고등부 결승전서 나경보(영신고)는 [illegible]鍾玉(비봉고)에 우세승을 거두었고중등부서 尹永培(경민중)는 양창훈(중앙중)을 판정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살아있는 마스코트」퇴짜맞은 아기코끼리

◇생후 15개월된 아기코끼리 아푸가 印度의 아폴로 서커스단에서 印度아시안게임때 「살아있는 마스코트」가 되기위해 훈련까지 받았으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살아있는 동물을 마스코트로 사용하지않을 방침을 굳히는 바람에 서커스단에다시 돌아올수밖에 없었다。【뉴델리22日AP統=聯合】

西武 먼저1勝

日本시리즈 개막

【나고야=楊森특파원】82년도 日本프로야구 정상팀을가리는 日本시리즈가 센트럴리그우승팀 쥬니찌(中日)드래곤즈와 퍼시픽리그 우승팀 세이부(西武)라이언즈의대결로 23일부터 시작됐다.

첫날 나고야구장서 벌어진 1차전에서 투타의 우세를보인 세이부가 7—3으로 홈팀쥬니찌를 격파, 1승을 올렸다.

마쓰누마(松沼)를 선발투수로 기용한 세이부는 2회초 4번 노장 다부찌(田淵)의 안타를 필두로 美國人 테리의 우전안타, 7번 구로다(黑田)의 좌중간안타, 8번 오까무라(岡村)의 3루번트 내야안타, 2번 야마사끼(山岐)의 좌전적시타등 집중5안타등 쥬니찌선발 고마쓰(小松)를 강타, 단숨에 4점을 올렸으며 3회초에도 3안타로 2점을 추가, 6—0으로 초반에 큰리드를 잡았다.

◇1차전

세이부·라이언즈	042	000	010	7
쥬니찌·드래곤즈	003	000	000	3

▲홈런=모카(3회·2점·쥬니찌) 오오따(8회·세이부)

85년國體 서울誘致

亞洲경기 點檢위해

86년도 서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SAGOC)는오는85년도 제66회 전국체육대회를 서울에 유치, 아시안게임의 시설점검및 경기운영을 위한 예비점검대회로 추진할 방침이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49>

안개속의 집 ⑯

여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풀어졌다. 진저리를 치며 킬킬대는 여자도 있었다.

『난 믿을수가 없어』

하영이 심통스러운 얼굴로 강력하게 부인했다.

『왜? 난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죽기전에 한번만 있었으면 싶은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을수 없다는 건 무식한 남자는 좋아할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때가 낀 남자를 좋아할수 있냐는 거야? 안그러니? 너희들. 이건 옛날얘기이긴 하지만 내 첫사랑이 어떻게 서운하게 무너졌는줄아니? 애인 셔쓰 깃에 꾀죄죄한 때 때문이었다구. 그걸 발견하자마자 정이 뚝 떨어져서 다신 안만나고 말았어』

『때도 때나름이지 지식인의 때하고 야성인의 때하고 같니? 야성인의 때는 분명히 멋 있었을 거야』

『넌 왜 본인보다 더 그남자를 두둔하고 나서니? 수상하다 넌』

『신나지 않니? 남의 일이라도 이 나이에 가슴만 울렁거리고 손목 한번 못 잡아본는 프라토닉 러브가 가능하다니 말야. 그건 살 빼는 약, 주름 펴는 크림보다 더 희망적인 얘기야. 나도 열여섯살쩍으로 돌아갈수 있을것같은 희망이생기는것 같아』

『얘, 갈롱 좀 작작 해라. 나이값을 해서. 마흔이 내일 모레야. 이나이에 갈롱이 헤프면 그건 주책밖에 안돼. 우선 재가말하는 프라토닉을 어떻게 믿니? 말도 안돼』

『정말이야. 손 한번 못 져봤어』

경아가 극구 부인했다.

『그런 사람을 뭐하러 하니?』

『나는 몰라. 그래도 좋기만 하던걸. 너희들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집수리하는 동안처럼 지겨운거 없잖아? 딴때같으면 속이 살살 내렸을텐데 이번엔 그동안이 꿈결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벌써 수리가 끝났나 싶더라니까. 그 청년 일하는거 바라보고 새삼 해머이고한는 즐거웠때문에 말야』

『요게 사람 약좀 그만 올릴수없냐?』

누군가가 경아의다리를 꼬집는 것같았다. 엄살 부리는 소리와 킬킬대는소리가 분위기를 걷잡을수없이 늘쩍지근하게 했다.

그때 그것도 그런 느낌이었나?

수지는 홀로 숨가쁜 긴장감으로 며칠전 일을 회상했다. 그냥 흘려버릴수도 있는 사건이랄 것도없는 사소한일을 친구의 체험을통해 재조명해 보려들었다.

며칠전 수지네집에선 보일러가 제대로 전화가 안되면서 보일러실에서 검은연기가 솟아 하마터면 화제가 날뻔한 일이 있었다.

그때 기욱이 난방청부업자인 친구를통해 불러온 보일러공을 데리고 지하실을 돌러보고 올라왔을때였다. 정원의 밝은 햇빛속에 우뚝서 있는 보일러공을 보면서 수지는 문득 아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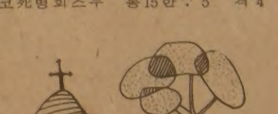
어쩔뻔했나? 그건실로 중대한 위기를 모면한 안도감 같기도했다. 온몸에 맥이풀리면서 다리팔이 무력해졌다.

그렇다고 보일러공과 단둘이 어두컴컴한 지하실을 돌아보면서 어떤 위험의 낌새를 느꼈던건 아니었다.

위기의식은 때가 지난후에 왔고, 위기를 모면케해준 그 보일러공이 고맙고미더웠다. 곧 위기의식 역시 그 남자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혼자서 멋쩍게 웃고말았다.

사람 하나를 놓고 제멋대로 도둑놈일까봐 의심하고나서 다시 도둑질을 안해줘서 고마와하는 식의 저능아적인 사고가 그땐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을까.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한국일보구독은 533-2361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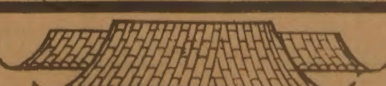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 기타 : 신상철
올겐 : 한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미용실 스타
파마/염색/헤어컷
예약전화 : 741-4410 (집) 742-6827
영업시간 : 9:00 A.M.-8:00 P.M.
〈일요일 월요일은 휴업〉
2437 FINCH AVE. W. WESTON, ONT.
(Finch main Plaza) 〈주차장 완비〉
741-4410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흥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싱싱한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 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소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파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주인이 여러 가게 운영으로 그로서리 가게 매니저를 급히 구합니다.
전화 : 466–7698 Mrs. 정

파오니어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55–8530 파커 또는 캄파니

가게 경험있고, 영어할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교통편한 다운타운지역. 주중 스테디 풀타임 JOB.
전화: 699–3953, 960–0376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헬퍼구함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댄 스

개인·소구룹·단체·출장지도.
교사: 김유수 문의: 742 –4208.
체계적인 교안으로 철저히 책임지도하며 주말지도도 가능함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Space Rent
꽃·파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버섯농장과 커다란집 매매함. 더이상 알고자 하시는분은 연락주세요. 영어 편지로 문의 바람.
FRANK MOLICA
R.R. #4 Bowmanville
Ontario, L1C 3K5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Tuck Shop 급매
좋은조건으로 양도 하겠음. 직접내방 요망.
2233 Hurontario St. missi.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렌트: $450. 리스: 4년반
아스킹: $12,000+스탁. 전화: 654–470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Flower Shop 매매함. 스카보로지역. 생긴지 5년반되고 작은 Plaza내. 영업시간은 조절됨. 리스 약4년. 렌트 월 $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438–2411(저녁 7시이후)

◉Milk Cooler(문 5개짜리), 깊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l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메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벡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여행사를 위탁 경영 또는 인수 받으실분 찾습니다.

P.O. BOX 152
STATION P.
TORONTO, ONT. M5S 2S7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섭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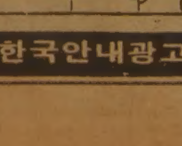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보십시요.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